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24일)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중공의를 수렴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당선

235표로 확정… 당선증 교부 후 임기 시작

당선 직후 고불 · 기자회견
"사부대중 믿고 새불교 열 것"
원로회의 인준 10월 2일 예정
쟁점 없어 부결 가능성 낮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前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의 소감이다. 원행 스님은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235표를 얻어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투표에는 선거인단 318명 중 315명이 참여했으며, 무효표는 80표로 집계됐다.

원행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 스님의 당선 발표에 이어 당선증을 교부받고 공식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총무원장 궐위에 따른 것으로 기존과 달리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원로회의 인준은 10월 2일 예정돼 있지만 원행 스님이 현재 공식적인 임기에 돌입한 데다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같은 쟁점사항이 없어 인준 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로회의 결과 차주상보〉

원행 스님은 당선 이후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전에 고불을 올리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현재 조계종이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사부대중의 공의에 따라 종단운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스님은 "소납은 제36대 총무원장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종단 과제 해결을 위해 승가복지와 종단화합,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탈종교화 현상으로 출가자 및 불자 수는 감소하고, 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 "사부대중 공의를 적극 수렴해 직무를 해나가겠다.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원행 스님은 선거제도 변화와 공의 수렴에 무게를 실었다.

원행 스님은 선거 후유증 해소방안과 선거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공의를 모아 다수가 바라는 선거제도를 따르는 데 힘쓰겠다"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기에 그들이 공론의 장에 나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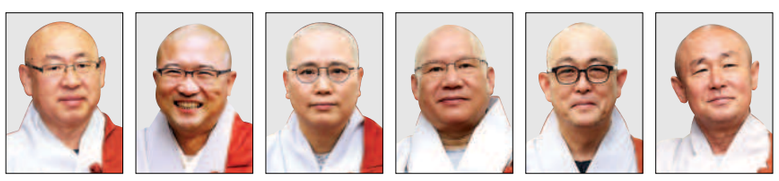
한편 선거에서 원행 스님이 획득한 235표를 두고 예상보다 적다는 견해도 대두된다. 선거를 이틀 남긴 상황에서 경쟁후보였던 혜총 · 정우 · 일면 스님이 동반 사퇴하면서 사실상 원행 스님의 당선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찬반투표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효표가 80표에 달하는 것은 원행 스님을 지지하지 않는 교구본사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 원행 스님 측 인사 중 한 스님은 개표결과가 발표된 후 "아슬아슬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투표가 진행되던 현장에서는 250표 이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신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무효표를 던진 교구본사들과 향후 어떤 교감을 통해 종단 화합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 기사 및 칼럼 2 · 3 · 19면〉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부실장 인사

총무 금곡 · 기획 오심 · 재무 유승 · 문화 현법 · 호법 성효 · 사서 삼혜 스님


금곡 스님 오심 스님 유승 스님 현법 스님 성효 스님 삼혜 스님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이 첫 공식일정으로 총무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고 집행부 진용을 갖췄다.

원행 스님은 9월 28일 총무원장 당선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부장에 금곡 스님, 기획실장에 오심 스님, 재무부장에 유승 스님, 문화부장에 현법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성효 스님, 사서실장에 삼혜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 및 보광사 · 흥천사 · 선암사 주지,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다. 신광사 · 월봉사 주지 및 불교중앙박물관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보우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수계했다. 석남사 정수선원 · 위봉사 위봉선원 · 불영사 천축선원 · 운문사 문수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봉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문화부장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개태사 · 보승사 주지 및 제13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김포 용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호법부장 서리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용덕사 주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및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사서실장 삼혜 스님은 택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삼장사 · 금당사 주지 및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법당 '세계선원' 개원

10월 4일 개원 법회

세계로 나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새로운 사찰이 탄생했다.

인천공항청사불자회 등은 10월 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새 법당 '세계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2001년 개청한 이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불교법당인 광제사가 있었지만 다소 외진 곳에 있어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새로운 법당은 인천공항 경찰단의 경승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승실장 법호 스님과 부실장 법현 스님, 그리고 인천공항 측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이번 법당 개설을 주도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인천공항 법당은 다른 곳에 비해 늘 나올 수 있는 신도가 구성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직원이나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본관 지하1층에 종교실이 있으며 이번 세계선원 왼편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실도 들어선다.

세계선원은 여행객들이 참배하고 좌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 각 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시 안전법회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당을 관리할 법호 스님은 "세계선원은 24시간 개방하여 방문하는 불자들이 예불, 참선, 독경 등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매주 정기법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공모

10월 31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0월 31일까지 제30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

포교대상은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이나 개인,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교구본사 주지나 포교 · 신도단체 대표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소정양식의 추천서와 포교활동 공적서, 이력서, 각종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0월 31일까지 포교원 교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농선 대원선사
복원출가
고 불 식
弄禪大圓禪師
復原出家告佛式

조계종 수덕사 문중 경허 · 만공선사님으로부터
전강선사님으로 이어진 법맥과
용성선사님의 강맥을 받으신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승가의 맥으로
법맥을 이어주기 위하여 복원출가하시는
원력을 받들어 고불식을 봉행하오니 수희동참바랍니다

장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78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시간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81권 화엄경 역경불사 현재 28권 출간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 불사문의 : 010-3880-8980 / 무료 전자책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당선 소감문

사부대중과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제방 원로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납은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불교와 조계종은 중생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으로 출가자 및 불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조계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단 과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승가복지와 종단화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먼저 승가복지입니다. 승가복지가 되어야 승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승가소속감을 높이겠습니다.
교구중심제를 위한 첫 사업으로 교구본사와 협의하여 노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복지관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단화합입니다.
소통과화합위원회를 만들어 어떠한 의견일지라도 총무원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비구니회의를 종법기구화하여 비구니스님의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남북불자교류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남북불교계공동으로 복원했던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등 적극적인 남북평화사업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불교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문화창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회향하는 명실상부한 대승불교의 모습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저 원행은 종정 예하와 제방 원로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총무원장 직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합장



2018년 8월 11일 국가지정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서 이옥선 할머니의 노래를 흐뭇하게 듣고 있는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의 모습. 사진제공= 나눔의집



2011년 캄보디아 뜨랑빼양 금산초등학교 준공식에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상임이사 원행 스님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지구촌공생회



2017년 1월 중앙승가대 수장고 상량식에 앞서 당시 총장이었던 원행 스님이 상량문을 쓰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승가대

세심·배려 리더십 갖춘 행정전문가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금산사 주지 · 종회의장 등 종단 주요요직 두루 거쳐

동문 최초 중앙승가대 총장 'Uni-출가' 新출가문화 제시

2005년부터 나눔의집 원장 위안부 할머니 도움에 앞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부터 중앙종회의장까지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종무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해당 본사와 기구에 발전을 조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가 많다.

195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원행 스님은 20살이 되던 1973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같은 해에 법주사에서 혜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1983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7년 중앙승가대학교 제5기로 졸업을 하며, 수행과 면학에 노력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서 11 · 12 · 13 · 16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16대에서는 하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서 중앙종회를 이끌었다.

종무행정 전문가로서 원행 스님의 능력이 보여진 곳은 2005년부터 두 차례 연임했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재직 당시다. 스님은 금산사 주지로 부임하며 '뜰 앞의 잣나무' 템플스테이를 열고 일반대중에게 불교문화를 알렸으며, 이를 발전시켜 일종의 토크 콘서트 템플스테이 '내비둬 콘서트'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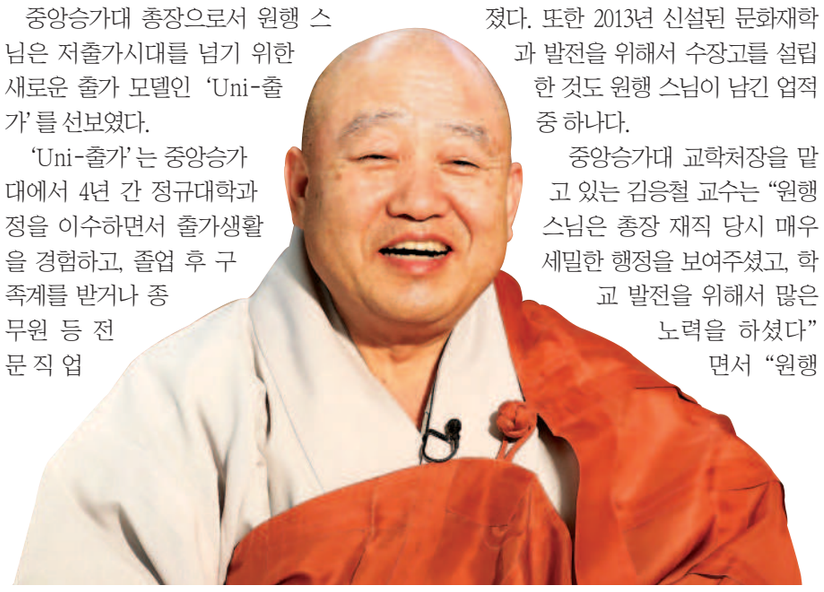
특히 '내비둬 콘서트'는 일감 스님을 발탁해 진행을 맡기고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했다. 이를 통해 금산사는 '전국구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됐다.

또한 원행 스님은 정식 취임하면서 전북지역 청년 · 직장직능 포교에도 힘썼다. 특히 전북경찰청 경승실을 개원하고 법조인 불자회를 새롭게 개편한 것은 큰 성과였다.

원행 스님은 종단 승가교육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제11, 12대 회장으로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았으며, 2014년에는 동문으로서는 최초로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중앙승가대 총장으로서 원행 스님은 저출가시대를 넘기 위한 새로운 출가 모델인 'Uni-출가'를 선보였다.

'Uni-출가'는 중앙승가대에서 4년 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종무원 등 전문 직업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 매 기수에 3명 가량이 꾸준히 출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 신설된 문화재학과 발전을 위해서 수장고를 설립한 것도 원행 스님이 남긴 업적 중 하나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김응철 교수는 "원행 스님은 총장 재직 당시 매우 세밀한 행정을 보여주셨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 "원행 스님이 만든 새로운 출가 모델인 'Uni-출가'는 젊은 출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매 기수 3~4명이 출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출가했다"고 설명했다.

원행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기대되는 분야는 종단의 대사회 활동이다. 스님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014년 장애전문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국제평화인권센터 대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무엇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나눔의집 원장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원행 스님이 원장 취임 이래 나눔의집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650여 평 대지에 180여 평의 생활관 2동과 법당 · 수련관 1동이었던 나눔의집은 현재는 1,800평 부지에 생활관 120평, 역사관 104평, 교육수련관 60평 등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할머니 추모사업과 전국에 있는 피해 할머니를 위한 재가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원행 스님은 부드러우면서 엄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면서 "특히 대중과의 소통에 게을리하지 말 것과 후원자를 잘 모실 것도 항상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항상 명절 때마다 음식과 용돈 등 할머니들을 살뜰히 챙겨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도 인기가 좋다"면서 "할머니들과 나눔의집에서 보여주셨듯이 소통 · 배려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종단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향전 영배

유 나 보장 영일 | 총무국장 혜 철 | 사업국장 석 운
율 주 중산 혜남 | 연수국장 만 초 | 사회국장 송 정
강 주 영은 현진 | 기획국장 선 본 | 포교국장 선 림
박물관장 지준 | 교무국장 인 경 | 호법국장 자 인
재무국장 무 문 | 원 주 선 원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공의 수렴 · 갈등 봉합에 역량 집중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과제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前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당선됐다. 다만 이번 선거는 전임자의 궐위에 따른 총무원장선거로 치러져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기존 당선인들이 2주 정도의 종무 인수기간을 가진 반면 원행 스님은 바로 총무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따라서 원행 스님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느 총무원장보다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게 종단 안팎의 중론이다.

수개월 이어진 내홍 해결

조계종은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면서 수개월간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설조 스님 단식, 전국선원수좌회가 동참한 승려 결의대회 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세력다툼이 번졌다.

원행 스님은 이 같은 현재의 종단 상황을 의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대중공의'를 제1종책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앞서 후보 기자회견서 "사부대중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수의 지적과 제안도 크게 듣겠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소외받는 종도가 없도록 살피면서 갈등을 종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종단 및 사회 각 분야별 대중공의 체계 마련'을 종책 실천과제로 제시한 원행 스님이 흩어진 종도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구중심제 실효성 검토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교구중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행 스님 역시 △교구행정 책임제 도입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말사주지 인사권 이양 등 교구중심제 안착을 강조했다. 하지만 종책토론회서는 교구본사의 행정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무 인수기간 없이 임기 시작
산적한 현안, 종단화합 나서야
각종 선거공약 실천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먼저 세워야
대중공의로 지혜 모을지 관심

이에 원행 스님은 '본사 순환근무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순환근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종무원 급여체계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본사는 드물다.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총무원 예산에서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순환근무 시 파견된 중앙종무원과 본사종무원의 임금 격차에 따른 마찰, 파견을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조합 · 노조 등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전에 고불을 올리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원행 스님의 종단 운영 7대 기조

1.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2. 대중공의를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3.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 교구중심제 안착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5.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새 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6.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에 힘쓰겠습니다.
7. 지혜와 자비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겠습니다.

비구니 위상강화 기대

원행 스님은 비구에 비해 종헌종법상 자격 제한이 많고, 종단 요직에 진출이 어려운 비구니들을 위한 위상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의 종법기구화 및 비구니특별교구 설립을 실천과제로 세웠다. 이는 오랫동안 종단 중앙행정에서 배제돼온 비구니들의 역할 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구니특별교구 설립의 경우 또 다른 교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교구가 되기 위해선 교구 소속 말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비구니사찰들은 24개 교구에 각각 속해 있어, 이를 비구니교구로 이양하는 데는 본사 협조가 불가피하다. 또한 특별교구라는 명칭을 붙여 24개 교구와 교집합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구니특별교구의 필요성과 역할, 법적 지위 등이 명확하게 정리돼야만 종단차원의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승려복지, 예산 확보 관건

원행 스님은 후보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추진 종책으로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을 꼽았다. 현재 내년 예정된 승려복지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3만6000원과 의료보험 2만원. 이를 약 1500명에게 지원하지만 원행 스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1만2천여 승려에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행 스님은 이 경우 1년간 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승보공양 운동 확대와 본사 지원 등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승려복지는 예산 확보가 성공열쇠인 만큼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당선 축하메세지

"나라를 나라답게, 불교도 동참을"

대한불교조계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나갈 원행 스님의 제36대 총무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일심원(歸一心願) 요익중생(饒益衆生)'이란 원행 스님의 지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중생을 위하고 노력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불교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모든 국난을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우리 민족의 고락을 같이해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과제를 원만히 헤쳐 나가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길에도 함께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희망의 등불 높게 세웁시다"

원행 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먼저 전국의 조계종 신도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종단의 출범이 그간의 모든 공과(功過)를 뒤로 하고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여 상처받은 종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부처님의 제자의 화합과 대통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간의 질시와 반목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종단과 종도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과 더불어 조계종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신도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신도대중은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삼보 외호에 앞장서 신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국민 정신적 가치 향상에 역주를"

스님께서는 금산사, 안국사 주지 그리고 중앙종회의장으로 사찰 및 종단 운영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스님의 행정경험과 인화력, 리더쉽을 통해 종단이 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계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임 총무원장께서 불미스럽게 퇴진했고, 선거과정에서도 경쟁 후보들이 사실상 선거를 보이콧하는 등 그 상처가 가볍지 않습니다. 종단이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교신도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은 더욱더 불교에 대해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불자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불교가 대중에게 더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불교의 정신적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신심 증장 계기 만들어 주시길"

불교는 신심이 근간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일반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보다는 떨어뜨렸습니다.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모두가 신심을 낼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저희 불자들은 신심(信心) · 원력(願力) · 공심(公心)의 자세로 삼보 외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 시대는 인권을 비롯해 성평등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의 해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상, 차문화 등 불교와 유관한 분야의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 같은 불교의 외연 확장에 대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불교 중흥의 기치를 힘차게 들어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소통과 화합으로 새 불교를"

대한민국 불교의 장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승풍을 훼손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큰 혼란과 함께 도덕적 타격을 입으며,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의혹의 여진이 남아 있는 시기에 소임을 시작하게 된 총무원장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께서 총무원장 후보시 제시한 가칭 '소통과 화합위원회'가 불교계의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통해 허울만 남아 있다고 보여 지는 사부대중이 아니라 진정한 승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낮은 자세로 원활히 소통을 한다면 상처를 입고 흩어진 종도들은 다시 모일 것이며 무너져 내린 신심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유가종찰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

“부처님 도량서 새 출발 기약해요”

봉은사 10월 5일 출소자 합동전통혼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공사판에서 음식을 만들며 힘겹게 살아온 전희경 씨(가명 · 50). 그녀와 현재 그녀의 남편 양영석 씨(가명 · 51)의 이야기는 한편의 소설 같다.

양영석 씨는 사회부적응자였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 술로 달래다 보니 주사가 심해졌고, 결국 1992년 폭력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 몇 차례 수감생활이 반복되며 더 이상 오갈 곳 없던 그에게 2017년 겨울은 또 다른 기회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며 금주와 함께 성실함을 찾은 그의 앞에 전 씨가 나타난 것이다. 성실한 그에게 마음을 연 그녀는 10월 5일 봉은사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식으로 시작을 알린다. 과거를 뒤로 서로의 인간미에 끌린 이들은 부부로서 새 출발을 부처님께 고한다.

양 씨는 “새 삶으로 출발하게 해준 공단과 봉은사,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명이 바뀐 저에게 새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제 나눔을 실천하며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이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범률은 22%에 달하지만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작은 관심으로 수혜를 받은 이들의 재범률은 1.5%에 불과하다. 범법의 과거에서 벗어나 따뜻한 관심이 이들에게 미칠 때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자비의 결혼식을 열어 눈길을 끈다. 부처님 품에서 불자대중이 축복하는 가운데 가정을 일궈 사회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자리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5일 오후 2시 미륵대불 광장에서 ‘제33회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통혼례’를 개최한다. 이번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통혼례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가 후원하고 한국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날 합동전통혼례에서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8쌍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 혼례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봉은사 사부대중 및 보호위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혼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에게 전통혼례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고, 전

법무보호공단, 서울시와 협력
출소자 8쌍 전통혼례식 올려
불자 동참하는 축제로 승화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녜요”

통의 얼을 되새김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앞서 주폭으로 형을 살았던 양영석 씨(가명)와 함께 살인으로 18년간 형을 살고 나와 이를 이해해준 현재 아내와 세 자녀를 키우는 김지훈 씨(가명), 빚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6개월 형을 살고 나온 임정혜 씨와 이를 지켜 준 그녀의 남편 등이 참여한다.

이들을 위해 결혼식도 봉사참여 활동이 제한적인 현대식 예식과는 달리 가마꾼, 수모, 기럭아범, 초롱동이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힘을 더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전통 혼례를 통해 구금으로 인한 한 때의 가정해체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라며 “전통혼례와 함께 출소자들이 불교의 자비정신과 전통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치 있는 행사에 봉은사가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나눔을 제공하는 사람도 모두 함께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기 혐의로 6개월간 형을 산 임정혜 씨(가명)는 “전통혼례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도움을 주실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전통혼례가 이렇게도 즐겁고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다”며 “저의 인생2막을 열게 해준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살겠다. 또한 혼례장소인 봉은사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 기념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10월 5일 국회중앙도서관서

‘572돌 한글날’을 맞아 〈석보상절〉 간행의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10월 5일 오후 1시 국회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석보상절〉 주해본 간행의 성격과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현전하는 〈석보상절〉 10권에 대한 주해본 완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동국대불교학술원은 국어학자와 불교학자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석보상절〉 번역과 주해 작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번역자 구성에서부터 번역방식, 출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어학 주해자로 학계를 대표하는 중진급 교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언어감각을 가진 신진 연구자를 고루 선정하여 의뢰했다. 불교학 주해자 역시 학계의 중견 연구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학계의 연구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석보상절〉 주해본 간행의 학술적 의미와 대중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불교계에서 한글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확인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시작은 정우영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의 ‘〈석보상절〉 주해본 간행의 성격과 가치’ 기조강연으로 알리며, 5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주제발표로는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교수의 ‘세종 · 세조대 왕실동향과 〈석보상절〉 간행’ △김기종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교수의 ‘〈석보상절〉의 저경에 관한 검토’ △최기표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의 ‘〈석보상절〉 불교주해의 성격 및 가치’ △이병기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석보상절〉 국어 주해의 성격 및 가치’ △동국대 불교학술원 효신 스님의 ‘〈석보상절〉의 국어교육적 가치와 활용’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불교계가 한글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현대어역을 통해 과거의 전통문화를 우리시대에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성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행자교육 교재 ‘불교한자입문’ 발간

반복해 쓰며 익히는 방식

행자들과 초심 불자들에게 유용한 불교 한자 입문서가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행자들이 필수 불교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불교한자입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발심 수행자가 기초적인 불교 한자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한자입문〉은 글자 수에 따라 한 글자에서 일곱 글자 단어까지 정리했다.

책은 2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 뜻을 설명하고 2장에서 쓰기를 연습한다. 또한 획순에 따라 반복하여 쓰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자를 익히는 방식이다.

교육원은 “〈불교한자입문〉은 출가한 행자들 뿐만 아니라 초심 불자들까지 고려하여 기획됐으며, 9월부터 출가하는 행자들에게 지급돼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추후 초심 불자들도 서사(書寫) 수행을 위한 용도로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 위한 불교史 교양도서 보급시작

불교사회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 펴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불교역사를 정리한 교양도서가 발간됐다. 교과서를 집필하고, 직접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직 중 · 고교 교사들이 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9월 27일 불교역사 입문교양서 성격의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종이와 나무) 발간을 알렸다.

이 책은 2016년 4월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교과서 연구위원회’에서 사업진행을 의결하며 추진된 것으로, 집필은 서인원(진선여고 수석교사) · 송치중(도선고 교사) · 이은령(경기도 광주중앙고 교사) · 강승호(과천여고 교사) 등 현직교사들이 맡았다.

또한 화엄탑사 주지 명법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의 원고 감수, 이미령 북칼럼니스트의 윤문작업을 거쳤다.



책은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독립운동까지 2600여 년의 역사를 각종 사진과 도표, 그림 등과 함께 담았다.

무엇보다 불교 미화를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 또한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석 · 박사학위를 받은 검증된 필진으로 공신력을 갖췄다.

이에 대학진학 등을 고민하는 수험생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연구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 불교사 서적들이 불교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역사를 방편으로 취하는 형식을 택했다면,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는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역사를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복잡한 설명을 줄이고, 역사적 사실 전달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책 이름과 별개로 불교초심자나 불교사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발간사에서 “책 발간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한국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을 풍부하게 첨부하고, ‘더 알아보기’ 코너를 곁들여 어려운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청소년들이 불교역사 상식을 갖추고, 불교사상과 문화까지 이해해 풍부한 교양을 갖추는 것은 물론, 대학진학에도 도움이 되도록 역사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도 힘 결집해 종단 중흥 나서자”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념법회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이 제26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종단 중흥을 선포했다. 태고종은 9월 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취임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편백운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종단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종단을 안정시킨 것은 집행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종단의 안정된 기조 위에서 새로운 태고종을 향한 비전을 실천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 우리 종단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채 때문에 지난 10년간 종단은 내홍과 침체 그 자체였다”며 “다행히도 부채청산과 종단재산 환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인의 종단 귀속으로 종단안정과 발전의 추동력을 갖게 되었다. 종단화합을 위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애종애교하는 종도들에게는 하등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종도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문 안도 밖도 아닌 곳의 '나'를 찾아서

파사무용단 '혼잣말하는 여자'
동양예술극장 3관 10.10~21일
혜개 스님의 '무문관'에 주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적이고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온 파사무용단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동양예술극장 3관에서 '혼잣말하는 여자'를 공연한다. 댄스 모노로그 '혼잣말하는 여자'는 파사무용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황미숙의 단독 공연이다. 공연은 한 여자의 혼잣말을 큰 소리로 불러내는, 몸으로 하는 독백이다. 곡진한 삶의 흔들림 속에서 터져 나오는 혼잣말, 공연은 그것을 '나'를 목도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공연은 혜개 스님의 〈무문관〉, 즉 '문 없는 문'에서 비롯됐다. "큰 길에는 문이 없으나 그 길이 천 갈래라, 이 문을 지난다면 홀로 천하를 걸으리라"에 주목했다. 문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오롯이 문 밖도 안도 아닌 곳에 '참 나'로서 있을 수 있음을 춤으로 이야기 한다.

막이 오르고 주인공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통의 부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 후에 찾아드는 무위함에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일상은 균열을 일으킨다.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균형을 잃고 그녀 안의 공허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소리를 지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고, 방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출구는 없고 작은 방 안에 적나라한 '나'만 남는다. 그리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다본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사람, 그들이 벗어놓고 간 허물들 속에서 널뛰는 회한, 기쁨, 아픔, 따뜻했던 순간들이 무대 위에 그려진다. 그러나 허물은 허물일 뿐. 결국 무대 위에는 여자 홀로 남는다. 쌓여있는 옷들을 정리하며 다시 작은 방에 머무는 여자. 여자는 죽은 이를 기리듯 방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본다.

'혼잣말하는 여자'는 문 밖에서 들어와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고 손에 닿지 않는, 열 수 없는, 손잡이가 없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 결국 문 안의 나와 대면하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이번 공연에서 '혼잣말'은 자신과의 대면이다. 그리고 그 대면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방이라는 공간을 탐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이라는 테제를 갖게 됐다. 이번 공연의 주요한 무대적 이미지이기도 한 '문'은 결국 한 여자를 감싸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그 기억 저편에서 한 여자를 옥죄고 있는 '업'을 상징하면서 여자를 가두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그리고 문을 열어 자신과 대면하도록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도 한다. '혼잣말하는 여자'를 준비함에 있어 주인공은 자신의 삶과 그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문들과 그 문턱에서 아직도 서성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파사무용단의 예술감독 황미숙 무용가의 '혼잣말하는 여자' 리허설 모습.

이번 공연은 단순히 한 여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한 것들, 오로지 혼자만의 방 안에서 행한 것들, 가슴안의 이야기들을 춤과 대사, 현대무용의 즉흥성과 다양한 표현들로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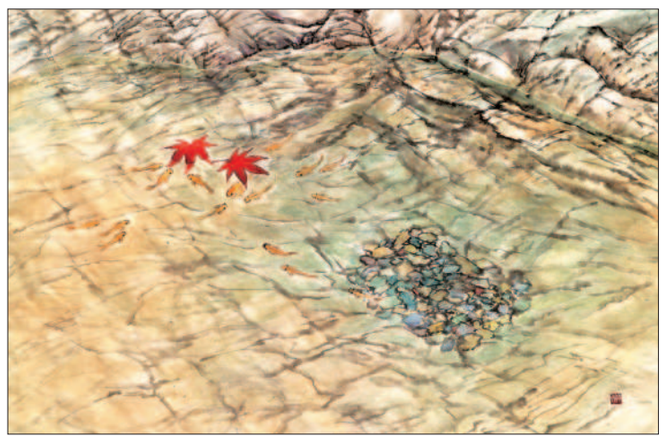
파사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안무가이자 춤꾼인 현대무용가 황미숙은 2005년 서울무용제 대상, 2006년 올해의 예술가상과 안무상, 2008년 이사도라 예술상, 2017년 제5회 김화숙무용교육자연구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버려야 할 것들', '붓다, 일곱걸음의 꽃', '파사, 소맷깃을 날리다', '노랑 달팽이', '목련아홉 번째 계단으로', '숭어의 하늘' 등이 있다.

물이 빚는 소리 없는 드라마

한경혜 개인전 '물 만난 세계'
운현궁 기획전시실 10.2~10

물속의 풍경을 수묵으로 그려온 한혜경 화가가 열 번째 개인전을 연다. 〈오체투지〉의 저자로도 유명한 한경혜 화가의 '물 만난 세계' 전이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운현궁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물 만난 세계에 살고 있다.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부화된 물고기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다. 물이 키운 물질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또 배설하고 물은 여러 군데로 윤회 같은 쓰임에 순응한다."


한경혜作, 안식처 48.5×73.5㎝ 한지 수묵담채.

한경혜 화가가 그만의 시선으로 그려낸 수묵의 물 속 풍경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의 작품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관찰하고 생각했다. 물이 만든 것들과 물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삶의 사유들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물이 다른 사물과 부딪힐 때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그 '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 위에 떨어져 어디론가 흘러가는 붉은 낙엽과 꽃잎, 물속을 걷는 물고기와 붉은 게, 움직이지 않지만 물과 늘 부딪히고 있는 돌 등 물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 없는 소리를 말하는 듯하다. 그 물의 소리를 작가는 "이성적인 냉철함과 동요하지 않은 고요함으로써 거대한 군중처럼 모일 때에는 두려움 같은 위엄을 보인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생명이라는 삶에 관여할 때 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운 심장박동의 정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작가는 우리도 늘 볼 수 있는 물속 풍경에서 경이로움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이번 작품에서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계절의 영역 여행을 한다. 그림은 보여주는 감성이다. 시각적인 언어로 눈빛 대화를 한다. 한경혜의 눈빛은 물의 드라마가 된다. 한경혜의 '물 만난 세계'는 서양의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그녀의 수묵이 또 다른 암호로 써내려가는 물속 드라마다.

한경혜 화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2년 '물항아리전'을 시작으로 2005년 첫 번째 개인전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시작으로 아홉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박재완 기자

국화 핀 山寺서 열리는 '생명나눔' 한마당

10월 6일, 불암사서 토크콘서트 및 문화공연

가을마다 열리는 '생명나눔 산사음악회'가 1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행사로 돌아왔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6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서 '제10회 불암사 산사음악회와 보현 스님의 행복 토크콘서트'를 연다. 산사음악회는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 · 조직 기능 희망등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왔다.

행사는 식전행사, 본 행사, 토크콘서트,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식전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자인 소천 이장학 소리꾼을 시작으로, 불암사 합창단 등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이어 일면장학금과 환자치료비 전달식, 치료비지원 홍보증서 수여 등 본 행사와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유튜브채널 '부처님마을' 운영, 저서 〈카르마 100일 행복체크카드〉 등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보현 스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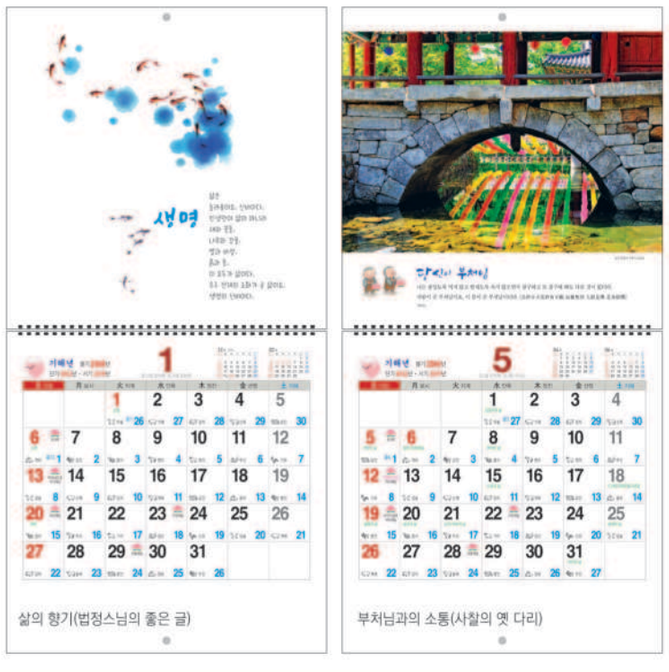
스님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행복을 주제로 법문을 전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나면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현미, 홍진영, 써니힐 등도 무대에 올라 산사음악회의 정취를 더한다. 이밖에도 불암사 국화축제, 환자후원금을 위한 바자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면 스님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만나는 산사 가을축제에 불자, 시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착한가격 높은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달라이라마 "난민 최종목표는 귀국"

유럽 순방 대중강연서 난민문제 입장 표명

박영빈 객원기자

유럽 내 난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유럽난민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9월 18일 '인디펜던트' 'AFP뉴스' '퍼스트 포스트'와 같은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입장을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유럽 각국을 순방중인 달라이라마는 12일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대중 강연에서 "유럽은 유럽인들의 것, 난민들은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현지 언론들로부터 "스스로 티베트 난민들의 지도자인 이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웨덴은 2015년 유럽연합(EU)에서 인구 대비 가장 큰 규모로 난민 16만3000명을 받아들인 국가로 이날 강연이 열린 말뫼에도 수많은 이민자가 살고 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지난 16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대중강연의 질의응답을 통해 난민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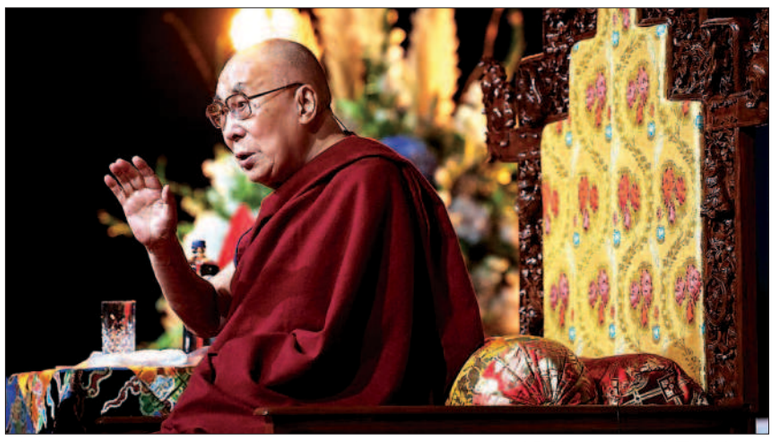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에 나선 여성은 "스웨덴에서의 발언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 후 "티베트 난민은 물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타국에서 망명 온 난민들을 돕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달라이라마는 "타국에서 유럽으로 망명 오는 난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돕고 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며 "난민들은 모두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지금 고국에서는 살상과 학대와 같은 고통이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고향을 떠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서 "난민 돌아가야" 발언
언론들 "부적절한 입장" 비판해
달라이라마, 문제발언 해명 나서
"기회 된다면 조국 재건 힘써야"

달라이라마는 이어 "단기적으로 난민에게는 안전하게 살 곳이 제공돼야 한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기술교육과 훈련이,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그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난민에 대한 일관된 저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대중 강연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을 예로 들며, 현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있는 만큼 조국보다 나은 곳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난민들을 인도가 받아줬다. 하지만 티베트 난민들은 조국의 상황이 바뀌면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 생활양식으로 인해 난민들이 조국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오래전부터 "난민은 일시적인 지위,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 재건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티베트 난민들 가운데 인도에서 교육을 받고 티베트로 귀국하는 난민들이 일정 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티베트로 귀국한 난민들은 중국당국이 운영하는 수용소에서 단기간 정치와 사상적 재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고향으로 복귀하며, 상당수 교육업이나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난민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발언은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라마는 오는 10월 말까지 대중강연과 법문을 위해 유럽을 순방하며, 현재 스위스를 방문 중이다.

'자살충동' 암 전문의, 불교로 극복

본인 경험 통해 환자들 '영적 치료'에도 관심

2003년 어느 날, 조나단 페이지(Jonathan Page)는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머리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뇌출혈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의자에 앉아 자세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붕괴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양 전문의 조나단 페이지는 9월 21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실의에 빠졌을 때 불교를 통해 극복한 경험을 소개했다.

조나단의 당시 뇌 충격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우울과 소진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나단은 "나는 주말도 없이 환자를 돌봤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의 웰빙(well-being)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그것은 '자기 방치'가 수년간 축적된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조나단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업무로 복귀했지만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전혀 모를 정도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종의 번 아웃(burn-out) 증후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대학생 때 우연히 접했던 불교를 떠올렸다. 그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 스님이 점심시간에 명상을 가르치던 기억을 더듬어, 집 근처 불교센터를 찾았다.


암 전문의인 조나단이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출처=ABC뉴스

조나단은 "매일 명상을 하다 보니 자살 충동은 해소됐고 수개월 후 심오한 변화를 경험했다"며 "속도를 늦추며 내 인생을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본 것이 성인이 된 후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병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료 환자 수를 낮추는 대신, 각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여전히 화학 및 방사선 요법이 주된 치료법이지만, 그는 환자의 영적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다.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돕는다는 그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명상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12년만의 불교축제 '나로빠' 열려

북인도 라닥 지역서 이례적으로 2년 만에

나로빠 대사 장신구 공개 각종 문화축제 등 펼쳐져

12년마다 열리는 북인도 라닥 지역의 최대 불교축제 '나로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지난 9월 20일 '뉴스 18' '더 프리 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인도 잠무-카슈미르 주에 있는 라닥 지역은 고대로부터 티베트불교가 번창한 곳이다.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나로빠 축제는 11세기경 인도에서 활동한 '나로빠' 대사를 기리는 축제다. 나로빠 대사는 티베트인 제자였던 마르빠(1012~1097)에게 법을 전한 까닭에 티베트불교에서 중요한 조사로 여겨진다. 특히 라닥 지역은 그가 수년간 무문관 수행을 한 곳으로 전해져, 나로빠 대사에 대한 신심이 깊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나로빠 축제에서 열린 문화행사. 사진출처=나로빠 축제 공식 페이스북 계정

나로빠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나로빠 대사가 사용했다고 전하는 6종의 장신구를 공개하는 자리다. 라닥의 불자들은 이 장신구를 보는 것만으로 다음 생에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6년 열린 공개행사에서는 약 5만 명의 불자와 일반인들이 장신구를 친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에 열린 개회사에서 축제운영위원장 캄딱 린뽀체(Khamtak Rinpoche) "나로빠 축제는 히말라야 지역의 풍부한 불교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밝히며 "12년마다의 정기적인 나로빠 축제가 지난 2016년에 열린 바 있지만, 신도들의 열성적인 청원에 의해 특별히 올해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다르멘드라 프라단(Dharmendra Pradhan) 인도 기술부 장관은 "이 행사로 히말라야 지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축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라닥의 수도인 레(Leh)에 소재한 헤미스(Hemis) 사원에서 열렸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오전에는 예불과 법회가 사원에서 봉행되고, 오후에 야외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문화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는 발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하는 패션쇼와 지역 작가들이 출연한 연극과 무용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는 젊은 예술작가들이 재능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문화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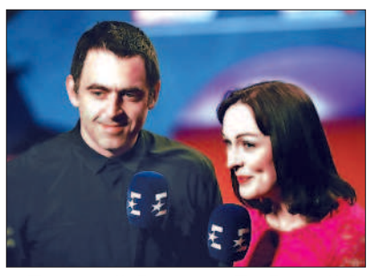
스누커 챔피언 오설리반, 3개월 단기출가

과거 "명상, 스트레스 억제 위해 훌륭" 등 불교 관심

세계 스누커(snooker) 대회에서 5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던 로니 오설리반(Ronnie O'Sullivan · 42)이 태국에서 스님들과 함께 3개월간 생활에 들어간다. 그는 한때 워낙 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으로 유명해 '로켓'이란 별명이 붙은 선수다. 하지만 오설리반은 수년 동안 기자들의 머리를 들이 받거나 탈의실을 부수는 등 일탈적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마약에 빠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9월 22일(현지시간)부터 태국 스님들과 함께 생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영국 언론 '미러(Mirror)'가 이튿날 보도했다. 과거 화려한 플레이를 잃었다고 생각한 팬들을 위한 특단의 결심이라는 설명이다.

오설리반은 이전부터 스트레스 억제를 위해 명상이 좋다고 하는 등 불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태국에서 3개월 단기출가에 들어간다고 밝힌 로니 오설리반(사진 왼쪽). 사진출처=미러

오설리반은 이번 단기 출가 계획을 밝히며 "무엇이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타이거우즈가 훌륭한 이유는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설리반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8상하이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박수관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7〉 삼양동 불탑사

4.3 광풍에 사라진 도량, 信心으로 재건



불탑사 대웅전 전경. 제주 4 · 3사건 당시 소개령으로 전소됐다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불사로 인해 현재 모습을 찾았다.



보물 제1187호 불탑사 5층석탑. 제주의 주요한 성보 문화재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제주올레 제18코스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도심 속 힐링 쉼터 원당봉. 그 안에는 고려시대 3대 비보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원당사지가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원당사지 터는 1914년 제주불교 중흥조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원당사지'가 '불탑사'로 개칭하면서 이 지역 불법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특히 제주 지역 불교 유물로 유일하게 지정된 '불탑사 5층 석탑(보물 제1187호)'에는 고려 기황후의 설화가 담겨있다. 원나라 황제 순제는 후손이 없어 고민하던 중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친 삼첩칠봉의 터에 절과 탑을 세우고 기도하면 태자를 얻을 것이라는 현몽을 꾸고, 탑을 세워 태자를 얻어 황후의 자리에 오른다는 이야기다.

천년의 설화를 배경으로 다시 중창됐지만 1948년 제주 4 · 3사건을 비켜갈 순 없었다. 소개령이 내려지자 신도들은 당시 법당에 모셔진 주불의 석가모니불과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탱화(독성 · 지장 · 산신) 등을 제주시 삼양동의 '엉덕앙물' 용천수가 솟아나는 인근 민가로 이운해 임시 법당을 마련한다.

1938년생인 불탑사 회주 일현 스님은 15살 무렵인 1951년 음력 4월 불탑사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 당시만 해도 마을에 성담을 쌓아 낮에는 밭에 가서 불탑사 주변 농지에 콩, 보리 등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토벌대들이 죽창으로 얼마나 천정과 벽 등을 쑤셔놓았는지, 옛 법당은 형색을 갖췄다고 할 수 없었지요. 밤에는 다시 성안의 임시 법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님은 1951년 음력 7월 한국전쟁을 피해 제주도에 피신 왔던 경호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다. 제주 4 · 3사건이 어느 정도 평정될 무렵인 1953년 불탑사는 대웅전 중창불사 계획을 세운다.

제주 4 · 3사건으로 너덜너덜해진 법당의 목재와 기와 그리고 못 하나까지 재사용했다.

"법당을 해체하면서 구부러진 못 하나하나도 일일이 펴서 다시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도님들의 신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화북 별도천의 모래를 등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당시는 끼니를 굶지 않는 게 다행일 무렵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도 먹을 게 변변치 않으니 직접 신도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불탑사로 향하는 오르막은 당시 좁은 오솔길이었다. 불보살을 등에 지고 이운이 잦다보니 금관과 손가락 등이 부러지는 등 훼손이 되어 땅에 묻어 드렸지만 탱화 등은 지금도 불탑사 법당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해 내고 있다.

"불보살이 훼손되면서 다시 부처님을 모셔야겠다는 신도들의 일념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은사 스님과 실상화 보살이 1957년 인연이 있던 부산으로 가서 시장을 돌며, 시주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대웅전에 봉안된 아미타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혼과 땀이 서린 법당이 완공되는 기쁨도 잠시 1959년 9월 한국을 강타한 사라호 태풍에 의해 신도들의 꿈도 산산조각난다. 그 후 불탑사는 오뚝이처럼 1964년 대웅전을 다시 중건하고, 2011년 6월에 이르러 전통사찰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대웅전 중창불사의 원력을 세운다. 불탑사는 5년 동안의 중창불사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가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불탑사 회주 일현 스님

토벌대 의해 대웅전 피해… 삼양동 민가서 불보살 모셔

한국전쟁 이후 못 하나까지 재사용하며 법당 다시 세워

사라호 태풍에 피해입지만 꾸준히 불사해 2015년 회향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불탑사

삼양리 소개 당시 함께 피해
불보살상 옮기다 파손되기도

제주시 삼양 1동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말사로 원당봉 위에 자리하고 있다. 불탑사는 1923년 안봉려관 스님과 안도월 스님이 3간 규모의 초가 법당 1동을 건축하여 창건하였다. 1930년 3월 25일 대흥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로 조선총독부에 신고하였다. 경내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제주불탑사5층석탑(보물 제1187호)이 있다.

1948년 11월 원당봉 위의 불탑사는 삼양리 마을로 소개당했다. 토벌대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기와 대웅전과 요사채를 모두 훼손하였다. 대웅전은 천정을 모두 쑤셔버려 돌집 모양만 남아있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요사채는 아예 훼손되었다. 1934년 와가(瓦家, 제주도의 토속적인 기와집) 4간의 법당으로 증설해놓았던 그 법당이다.

소개되면서 불상과 탱화를 삼양동 남의 집 방 한 칸을 빌려 모셨다. 불상은 목조 높이 1척 5촌의 석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 삼존불을 모시고 있었다. 후불탱화와 신중, 칠성, 지장, 현왕, 독성, 산신, 감로탱화도 함께 소개되었다.

1955년 경호 스님과 일현 스님이 불탑사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훼손되었던 법당 자재로부터 못을 빼내어 신도들이 못을 두드려 펴서 사용하였고 화북 원명사 옆 하천의 모래와 삼양 검은 모래를 지어 날랐다. 신도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으면서 일하였다. 제주 4 · 3사건 당시의 불탑사는 오층석탑 북쪽에 나란히 위치해 남쪽을 향하고 있었으나 위치를 서쪽으로 이동하여 20평정도의 법당과 요사채를 재건하였다. 불상은 소개되어 옮겨 다니며 손과 보관 등이 훼손되었으나, 어려운 시절이라 다시 봉안하지 못하고 한동안 사용하다 매불하였다. 탱화도 훼손되어 현재 산신, 지장, 독성탱화 3점만이 남아있다.

삼양리는 제주4.3사건 내내 많은 희생이 이어진 마을이다. 무장대와 토벌대가 서로에 대한 보복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연속되었다. 무장대가 삼양지서를 습격하면 경찰은 동네 청년과 주민들을 연행 구타하고 감금하며 학살하는 일이 계속 되풀이돼 이어졌다. 4 · 3성이 구축되어 마을 사람들이 보초를 서야 했던 마을이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금령 박영호가 지은 〈남다병서〉.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초의가 이룩한 선차의 복원이 당시 선비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초의차 우수성, 詩로 절창하다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上書

⑱ 박영보의 남다병서

초의의 명성이 경향에 알려진 것은 1830년경이다. 이 무렵 스승 완호의 탑명(塔銘)을 받기 위해 상경했던 초의는 추사 댁에 머물며 상경했던 계획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추사 댁에 변고가 생긴 것. 바로 추사의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유배되는 어려운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추사 댁에 머물지는 못했지만 세상사 새옹지마라. 홍현주(洪賢周, 1793~1865)의 별서 청량산방에 머문 초의는 이듬해(1831) 홍현주가 주최한 청량산방 시회에서 시재(詩才)와 초의차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참으로 사람에겐 때를 얻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1830년 금령 박영보(朴永輔, 1808~1872)가 지은 〈남다병서(南茶幷序)〉는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초의가 이룩한 선차의 복원이 당시 선비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셈이다. 이 자료는 〈남다병서〉 이외에도 '몽하편(夢霞篇)' 등, 몇 편의 시를 시첩(詩帖)으로 묶은 것인데, 크기는 16.8×23.5cm로 청대에 유행했던 화지를 썼으며, 박영보가 초의에게 증교(證交)를 위해 지은 것이다.

박영보의 약력을 살펴보면 금령은 그의 호이다. 암행어사로 이름이 높았던 박문수(朴文秀, 1691~1756)의 후손이며, 시서화 삼절로 칭송된 신위(申緯, 1769~1845)의 제자로, 시문에 밝았다. 1862년 동지사(冬至使)로 연경을 방문하여 청의 선진화된 문물을 경험했고 공조판서를 거쳐 형조판서를 역임했다. 파행적인 세도정국과 근대화 과정의 격랑 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고민했던 문인이었고, 평소 차를 즐겼던 인물이다. 이산중이 초의차를 얻은 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차를 스승 신위와 함께 즐긴 후 〈남다병서〉를 짓는다. 신위도 이 시에 화답하여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를 지었다. 스승과 제자가 초의차를 감상한 후 서로 화운하여 다시(茶詩)를 지은 사례는 한·중·일 차문화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남다병서〉의 판본은 필자의 소장본과 반남 박씨 문중에서 보관된 금령의 친필본 문집 속에 수록된 〈남다병서〉가 있다. 두 본의 〈남다병서〉에는 글자의 출입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소장본 〈남다병서〉의 소장본을 저본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쪽에 나는 차는 영남과 호남 사이서 난다. 초의가 그곳에 사니 정약용 승지와 김정희 교각이 모두 문자로써 교유하였다. 경인(1830)년 겨울 한양에 예방하실 때 예물로 가져온 손수 만든 차 한 포를 이산중이 얻었다는데, 그 차가 여기저기를 거쳐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차가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마치 금루옥대처럼 귀하게 여긴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자리를 깨끗이 하고 앉아 차를 마시며 장시 20운을 지어 선사에게 보내니 혜안으로 정정하시고 아울러 화운을 보내 주소서.

옛적에 차를 마시면 신선이 되었고
질이 낮은 사람도 청현한 사람됨을 잃지 않았네.
쌍정과 일주 차, 세상에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우전과 홍곡이란 (명차의)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네.
아름다운 다기(茶器)에 명차를 감상하여
중국 차의 진미는 이미 경험했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차, 더욱 더 좋아
처음 돋은 차 싹, 여리고 향기롭다고 하네.
이르기는 서주시대요, 늦게는 지금이라
중외가 비록 다르지만 너무 서로 통한다네.
모든 꽃과 풀들은 각기 족보가 있으니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차를 알았던 것일까.
신라의 상인이 당에 들어간 날,
만 리 길, 푸른 물결을 건너 배를 타고 (차 씨) 왔다네.

금령 박영보 지은 〈남다병서〉

차에 대한 경화사족 이해 담아

초의 이룩한 선차 복원 평가도

스승 신위도 화답하는 시 지어

師弟가 차 감상 후 茶詩 작성

한·중·일 차문화사서 드문 사례

(강진 해남 땅, 호주나 건주지방 같다. 남쪽 바다와 산 사이에 흔히 있는데 강진과 해남이 최고이다.)
한번 파종하여 버려두곤
꽃 피고 잎 지는 세월 부질없이 지났더니
공연히 천 년 동안 靑山에서 보냈네.
기이한 향기 오래도록 막혔다가 드러나니
봄에 딴 찻잎, 대 광주리에 가득하네.
하늘에 뜬 달처럼 둥근 작은 용봉단차는
법제한 모양이 비록 거칠어도 차 맛은 좋다네.
초의노사는 옛날부터 염불에 힘써서
농차(濃茶)로 응체를 씻고 진선을 참구하네.
여가에 글 쓰는 일로 깊은 시름을 밝혀
당시의 명사들이 존경하며 따른다네.
눈보라 치는 천 리 길을 건너온 초의
두강(차 이름) 같은 둥근 차 가지고 왔네.
오랜 친구, 나에게 절반의 단차를 보내니
그냥 둬도 선명한 광채, 자리에 찬란하다.
나에게 수액인 차 마시는 버릇이 생겼으니
나이 들어 맑은 몸이 견고해졌네.
열에 셋은 밥을 먹고 일곱은 차를 마시니
집에서 담근 강초처럼 비쩍 말라 가련하구나.
이제껏 석 달이나 빈 잔을 잡고 있으니
물 끓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
오늘 아침, 차 한 잔에 마음과 몸을 씻어내니
방 안 가득 차 향기 자욱하게 피어나네.
도화동 신선에게 오래살기 비는 건 번거로우나
차가 없어 백낙천과 함께 시 짓지 못함이 부끄럽네.
1830년 11월 15일 금령 박영보 관수화남

南茶湖嶺間產也 草衣禪師雲遊其地 茶山承旨及秋史閣學 皆得以文字交焉 庚寅(1830)冬來訪于京師 以手製茶一包爲贊 李山中得之 轉遺及我茶之閔人 如金縷玉帶 亦已多矣 淸座一啜作長句二十韻 以寄禪師 慧眼正之 兼求郢和
古有飮茶而登仙 下者不失爲淸賢
雙井日注世已遠 雨前紅穀名今傳
花瓷綠甌浪珍賞 眞味中華已經煎
東國産茶茶更好 名如芽出初芳妍
早或西周晩今代 中外雖別太相懸
凡花庸草各有譜 土人誰識茶之先
鷄林商客入唐日 携渡滄波萬里船
康南之地卽湖建 一去投種遂如捐
(南方海山間多有之康津海南其最也)
春花秋葉等閒度 空閱靑山一千年
奇香鬱沈久而顯 採春筐筥來賁緣
天上月搗小龍鳳 法樣雖麤味則然
草衣老師古淨業 濃茗洗積參眞禪
餘事翰墨倒寥辨 一時名士攤香處
雪飄袈裟度千里 頭綱美製玉團圜
故人贈我伴瓊玖 撒手的皪光走筵
我生茶癖卽水厄 年深浹骨冷淸堅
三分飡食七分飮 沈家薑椒瘦可憐
伊來三月抱空椀 臥聽松雨出饞涎
今朝一灌洗腸胃 滿室霏霏綠霧烟
只煩桃花乞長老 愧無菊蘿酬樂天
庚寅 十一月 望日 錦舲 朴永輔 盥水和南

〈남다병서〉의 체재는 서문과 장시로 구성되었다. 서문은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나 초의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남다(南茶)'란 무엇인가. 바로 남쪽에서 나는 차로 초의가 만든 차를 지칭한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그는 차를 애호한 사람으로, "오늘 아침, 차 한 잔에 마음과 몸을 씻어내니/방 안 가득 차 향기 자욱하게 피어나네"라고 했다. 초의가 만든 차는 그에게는 군침이 돌게 하는 차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의노사는 옛날부터 염불에 힘써서/농차(濃茶)로 응체를 씻고 진선을 참구하"는 선승이라는 것이다.

"눈보라 치는 천 리 길을 건너온 초의/두강(차 이름) 같은 둥근 차 가지고 왔"던 초의가 속진을 씻어 주는 차를 이들에게 공여했던 사실은 이 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결국 차란 사람에게 언제나 유익한 정신 음료였던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지금은 도난돼 사찰을 떠난 김룡사의 성보들. 사진 왼쪽부터 김룡사 아미타회상도(1803년 作), 김룡사 독성도(1888년 作), 김룡사 신중도(1803년 作).

근대 경북 중심사찰서 사라진 불교회화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⑱ 김룡사의 도난 성보

현재 경상북도에 위치한 조계종 교구본사는 김천 직지사(8교구), 대구 동화사(9교구), 영천 은해사(10교구). 경주 불국사(11교구), 의성 고운사(16교구)이다. 그러나 근대 31교구 본사 체제에서는 김천 직지사를 대신하여 문경 김룡사, 불국사를 대신하여 경주 기림사가 교구 본사였다. 특히, 문경 김룡사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경북 문경, 예천, 상주, 영천 등에 위치한 많은 말사를 거느릴 정도로 사세가 컸다.

김룡사는 문경시 산북면 김룡리 운달산(雲達山)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다. 김룡사는 588년에 운달 조사가 창건하여 운봉사(雲峰寺)라 하였는데, 운봉사의 위치는 운달산 정상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금선대(金仙臺)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통일신라부터 조선 전기까지 사찰과 관련된 연혁을 밝힐 수 있는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임진왜란 중에 폐허가 된 김룡사는 1624년에 혜총과 그의 제자인 광제 · 묘순 · 수헌 등이 법당, 선당, 승당, 범종루, 정문, 동서 회랑과 향로전 등을 중창하였다.

1643년에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1649년에 의윤 · 무진 · 태휴 등이 중건하였다. 1690년에 연하당과 1695년에 만월당을 건립하고, 1703년에 괘불을 조성하였다.

그 후 1706년 수월료(水月寮)를, 1708년에 응진전과 1709년에 극락전, 원통전, 한산전(寒山殿)을 건립하고, 설잠이 상실(上室)과 중실(中室) 및 향적전을 세웠다. 1714년에 담유와 탁밀이 명부전과 동전(東殿)을 건립하고, 성천이 범종루를 중건하였다.

1726년에 자관이 영산전과 명부전을 중건하고, 1727년에 지원과 성정이 회전문과 흥하문을 건립하였으며, 1734년에 극윤이 산영루(山影樓)와 1740년에 수연이 청하전(靑霞殿)을 세웠다. 이후 1781년에 명부전을 중수하고, 1791년에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김룡사는 19세기에도 많은 전각의 중수와 불화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1803년에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신중도, 응진전 후불도와 현왕도, 신중도 등을 조성하고, 1846년에 대웅전을 중수하였으며, 1858년에 지장도 조성과 1867년에 침계가 응향각 중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1880년에 사천왕도와 독성도, 금선암 후불도와 신중도, 양진암 후불도 등을, 1888년에 칠성도와 독성도를, 1894년에 산신도와 양진암 후불도를 조성하였다.

김룡사는 1911년에 31본산의 하나로 경북 북부 일대에서 40여 개의 말사를 거느렸으나, 조계종이 설립된 후 제8교구본사 직지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응진전, 금륜전, 명부전, 상원전, 영산전, 원통전, 첨성각, 범종각, 수월당, 만월당, 연하당, 일주문, 천왕문, 요사 등이 있고, 부속 암자는 대성암, 화장암, 양진암, 금선대 등이다.

양진암은 1658년에 설잠 스님이 창건하였지만 1664년에 불탄 뒤 1749년에 환월 스님이 중건하였다. 그 뒤 1769년에 무영 스님이, 1825년에 해운 스님과 경봉 스님이, 1840년에 정봉 스님이, 1929년에 인택 스님이 각각 중수하였다. 대성암은 1800년에 영월 스님이 청하당을 옮겨 창건하고, 1886년에 혼성 스님이 중수하였다.

20세기 전반에 김룡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조선총독부 관보본에 자세히 적혀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하면 김룡사 전각과 암자에 봉안된 성보 문화재가 220건 538점으로, 이 중에 불상 64점, 불화 118점(미타탱 등 44점, 고승진영 74점)이 소장되어 있었다.

鮮末~근대기 경북 본사 역할
임란 이후 중건 불사 이어져
1990년대 들어 불화 도난돼
종단 신고돼 대중 관심 요망

그러나 1932년 12월 10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 1778호에는 불상 69점, 불화 83점(진영은 개제되지 않음)으로 적혀 있다.

이 가운데 김룡사에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에 도난 신고된 문화재는 아미타회상도(1803년 제작, 1994년 4월 3일 도난), 독성도(1888년 제작, 1994년 4월 3일 도난), 사천왕도(4점, 1880년 제작, 1994년 8월 15일 도난), 신중도(2점, 1803년과 1880년 제작, 1994년 8월 15일 도난), 불망비 귀부(2008년 10월 5일 도난)이다.(〈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2016년 간행).

1803년에 조성된 아미타회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 두 곳에서 소장하고 있었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아미타후불도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중앙에 아미타불이 보상화문과 여의두문으로 구성된 붉은색의 대의를 걸치고 정면을 향해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한쪽 발을 내보이며 앉아 있다. 수인은 오른손에 백련 한 송이를 들고 있다.

서방정토의 교주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미타유스, 극락정토를 주재하기에 무량광, 무량수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토삼부경(〈무량수경〉 · 〈관무량수경〉 · 〈아미타경〉)에 의하면 아미타불의 옆에는 8대보살이 함께 등장하는데 화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불을 에워싸듯이 배치되어 있다. 화불이 표현된 보관을 쓰고 있는 관음보살을 비롯해서 대세지, 지장, 미륵, 보현, 문수, 금강수, 제장애보살이다.

보살 바로 옆, 화면의 좌우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외호하듯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과 가섭존자까지 그려 넣어서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설채법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부분적으로 금니와 호분을 사용했다.

독성도는 1888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에는 독성도, 산신도, 칠성도가 함께 삼성각에 봉안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나반존자를 독립적으로 조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화면의 아래쪽에 명문곽을 구획하고 묵서된 화기가 있어 조성 시기와 발원자 등을 알 수 있다. 소나무 아래 너럭바위 위에 앉아 있는 노인의 얼굴을 한 나반존자 옆으로 폭포수가 흐르고, 바로 옆에 동자가 존자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려는 표정으로 나반존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 나반존자의 얼굴에 표현된 눈썹은 희기도 하지만 너무나 길어서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있다. 수행으로 해탈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의습과 자세에서 부드러운 필선으로 자유스럽게 묘사했다.

신중도 2점 가운데 1803년 작으로 알려진 불화는 채운(彩雲)으로 크게 화면을 상 · 하단으로 구분한 뒤, 상단에 두광과 신광을 두른 대자재천과 범천, 제석천을 상반신만 보이게 그리고 일월천자, 보살 등 천부중을 배치하였다. 하단에는 깃털이 달린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위태천을 중앙에 세운 구도로 좌우에는 호법신 천룡팔부 등을 그리고 상단 아래 신중들 사이에 성군(星君)을 표현한 형식이다. 호법신장들이 지니고 있는 무기를 금니로 칠하여 강조한 듯 보인다.

근대 김룡사에 소장된 신중도는 조선총독부 관보본에 5점이 확인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서 7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수량에서 2점이나 차이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이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대장을 통해서도 소장유물의 변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다.

다행히도 1994년 4월과 8월에 도난당한 김룡사의 성보들은 문화재청과 종단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고 눈여겨 살펴본다면 도난 성보의 행방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보를 찾고자 하는 지속적인 활동과 더불어 관련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조명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종단과 사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김룡사 신도와 일반 재가불자들도 함께 도난성보가 제자리에 다시 봉안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어린이 콘텐츠 확보가 사찰 미래 담보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⑱ 어린이 포교의 방향



서울 불광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생태체험 현장 모습. 사찰이 각종 체험학습 활동으로 진출한 선사례로 꼽힌다.

절에 가면 신도의 대부분은 노인들이다. 중년이면 젊은 편이다. 노인 신도가 많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신도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젊은 신도, 특히 어린이 불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어떤 조직에서든 어린이는 그 미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린이가 자라서 결국 그 조직의 중추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종교시장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과점 구조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인구 중 세 종교의 인구비율은 낮을 때는 95%에서 높을 때는 98%이상이라고 한다. 우리사회가 다종교 사회임은 분명하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중 하나를 믿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포교를 두고 담합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세 종교, 특히 불교와 개신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개신교 전래 이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불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개신교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지금은 개신교가 불교의 신도수를 추월하여 종교인구 1위가 된 상황이다. 어린이 불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간극은 줄어들기 보다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어린이 포교의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주지하다시피 예전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 방학캠프 등 어린이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꾸준히 지속해왔다. 예전 어린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미래의 씨앗을 뿌린데 비하여 불교는 당장의 열매를 따는데 급급해서 불교 인구가 감소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린이 포교는 당장의 지출은 발생하는데 비해 즉각적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아이들은 시끄러워서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어린이를 절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그리고는 당장에 수입이 생기는 노인과 부모들만 절에 잡아두고자 하였다. 어린이 포교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당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세상을 등지고, 당시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이 노인들이 오늘날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아이들은 이제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되었으나 절에 다니지 않으며,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 역시도 절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교신도는 줄고 절 살림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기사회생을 위해선 이제라도 어린이 포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결실인데 한국불교는 이를 간과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포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한국사회 종교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탈종교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의 종교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의 감소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등이 손꼽힌다. 먹고 사는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종교가 대안이나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종교에 대한 근원적 갈망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인간의 실존적 고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 교수는 "전통적 종교는 쇠퇴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종교는 인류의 지혜이자 역사적 자산이다. 보존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진단한다. 인문학, 템플스테이, 명상 등 종교와 유관한 행위들이 대중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 전통적 종교의 쇠퇴 속에서도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한 종교학자는 "근대 이후 한국종교가 마치 사회와 분리되는 폐쇄공간인 것처럼 집단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다. 개인의 영적 욕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모색할 때이다"라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종교인의 비율은 줄었으나 종교심은 여전하다. 현실이 분주해서, 종교가 믿음을 주지 못해 종교를 떠나 있지만 종교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 심정은 변함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깊은 본성과 욕구를 헤아려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각박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한 이웃으로, 언제나 인간을 품어주는 너그러운 큰 산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에 찌든 인간들이 편안하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귀의처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갈구하는 다정함과 너그러움이 아니라 이익이 되면 품고 그렇지 못하면 내치는 종교가 어찌 포교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한국불교는 이런 입장을 어린이 포교에 대입할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사찰에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하여 어린이 포교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어린이법회 활성화는 포교 첫 걸음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가 최대 관건
명상·체험활동 등 적극 활용해야

우리사회 종교시장에 대해 이해를 했으므로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포교의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이 법회다. 법회는 부처님을 예경하며 부처님 법을 배우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회를 하는 사찰을 주변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어떤 종교의 신도가 된다는 것은 그 종교의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에 참석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법회는 아이들이 불교 신도로서의 첫걸음이다. 이 첫걸음을 통하여 사찰과 스님에 대한 거리감이 해소되고 불교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사찰과 하나 된 불자가 되는 것이다.

어린이 법회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회는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회의 핵심인 법문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인생에 대한 법문의 내용도, 무상이니 공이니 연기니 하는 용어도 아이들에게는 도통 와닿지 않는다. 아이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회가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 법회가 열린다면 아이들을 편안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교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스님이 어린이 법회의 지도교사 되어준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스님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종립대학의 불교 전공 학생 또는 대학생불교연합회 학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여타의 불자에 비하여 불교 전공 지식이 풍부하고 신심도 갖추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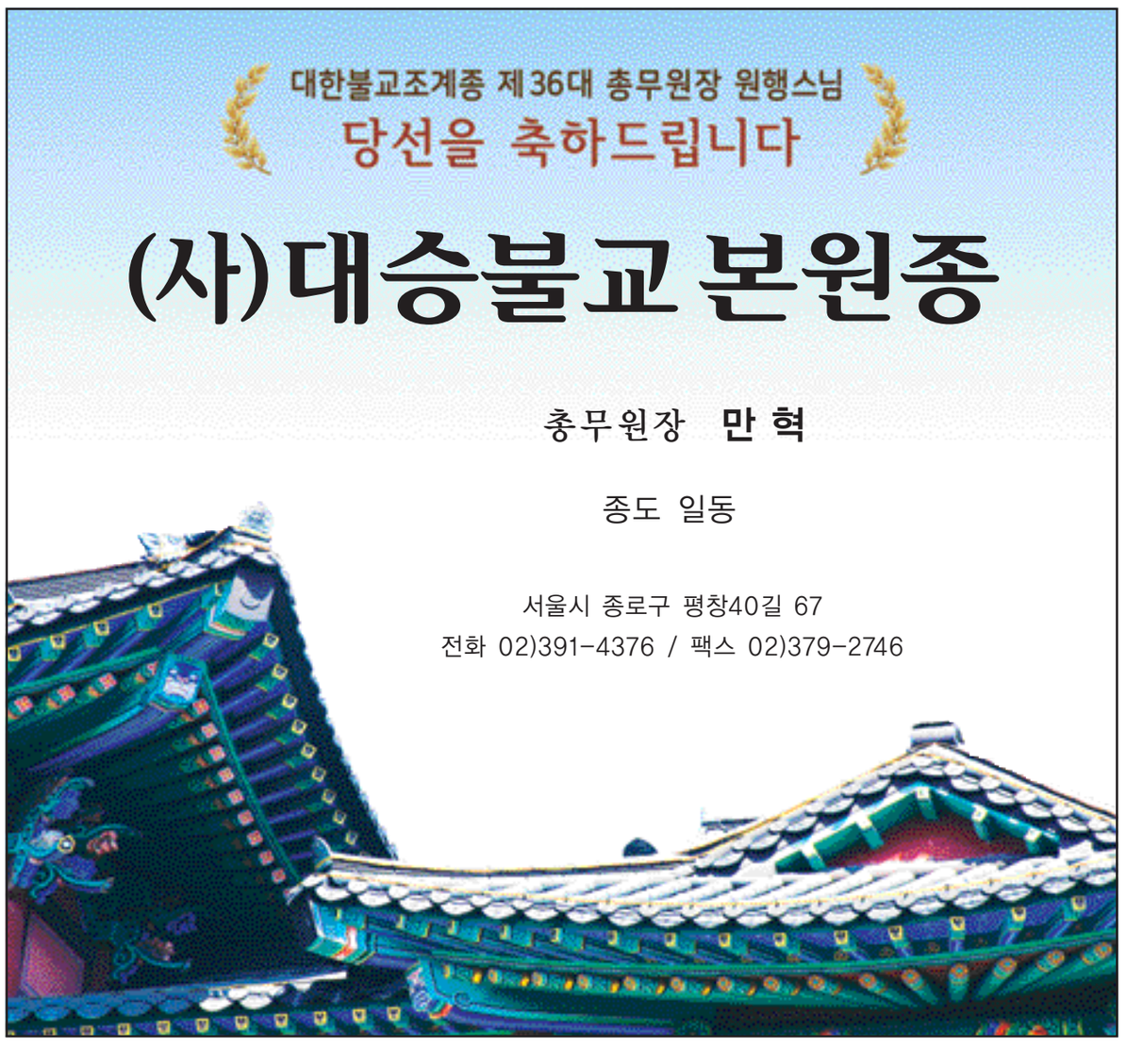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법회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법회 말고도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 방과 후 활동과 각종 캠프 등을 프로그램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방과 후 활동과 캠프는 학교의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이 인성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방과 후 활동은 장기적, 상시적인데 비하여 캠프는 단기적, 임시적이다. 하지만 양자 모두 수업이 아닌 체험과 놀이에 기반한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방과 후 활동과 캠프의 운영을 위해서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사찰의 장점과 아이들의 호기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명상은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사찰 친화적인 콘텐츠이다. 다만 명상은 자칫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적(靜的)인 참선 수행보다는 정중동(靜中動)할 수 있는 '숲길걷기 명상'과 '명상 체조', 그리고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이 있는 '만다라 명상'과 '별빛 명상' 등이 좋다. 명상과 더불어 사찰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 친화이다. 농촌 체험, 염색 체험, 숲 체험, 별자리 탐방, 생태과학관 탐방 등 자연을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좋다. 이외에 풍물, 도예, 운동 등도 사찰의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콘텐츠들은 사찰에서 아이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어떤 콘텐츠가 되었든 학교와 학원의 연장이 아닌 수업으로부터의 탈출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한국불교의 미래다. 그리고 불교신도의 감소와 출가승려의 감소는 현재 한국불교의 최대 과제이다. 불자가 줄고 스님이 줄어드는데 어찌 불교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하루이틀 만에 해결할 수 없다. 당장에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리도 없고,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리도 없다. 한국불교가 불자와 스님이 모두 감소하는 위중한 상태에 놓여있기에 마음이 급하지만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는 심정으로 어린이 포교에 전력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어린이는 한국불교의 미래다.' 어린이가 사찰에 다녀야 불자가 늘고, 불자가 늘어야 스님도 늘지 않겠는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頭首는 수행·교육 등 상위 이판 소임

〈두수〉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⑱ 선종사원의 소임자들(2)
– 서서(西序) 두수(頭首)

감원, 유나, 전좌, 직세, 지객, 지전 등 동서(東序) 지사(知事)가 서무, 행정, 재정 등 총림의 운영과 관련된 상위직 사판 소임이라면, 수좌, 서기 등 두수(頭首)는 수행, 교육 분야와 관련된 상위직 이판 소임이다. 두수는 당·북송시대에는 5두수 제도였으나, 남송에 이르러 불전(佛殿) 담당인 지전(知殿)이 추가되어 6두수가 되었다. 수좌·서기(書記, 서장)·지장(知藏, 藏主)·지객(知客)·지욕(知浴, 욕주)·지전(知殿)으로서 이들을 가리켜 6두수라고 한다.



대중 소임을 적어놓은 한국 선원의 용상방.

- 주지
- 6두수(六頭首)
  - 수좌(首座, 수행, 납자 지도 총괄)
  - 서기(書記, 書狀, 문서 담당)
  - 지장(知藏, 藏主, 장경각 담당)
  - 지객(知客, 접빈 담당)
  - 지욕(知浴, 浴主, 욕실 담당)
  - 지전(知殿, 대웅전 담당)

(1) 수좌(首座)

수좌는 선원의 수석 선승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인 동시에 명예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다. 선종사(禪宗史)에서 보면, 일파(一派)나 일가(一家)를 이룬 선승 중에 수좌직을 거치지 않은 이가 드물다. 수좌직은 곧 고승으로 가는 길목, 또는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지(방장)가 외출중이거나 일시적으로 궐위(闕位)가 되었을 때에는 수좌가 주지를 대신하여 소참, 조참, 만참 등의 법문을 한다.

수좌는 서서(西序) 두수(頭首)의 우두머리로 납자들의 참선 수행 지도 등 교육을 총괄한다. 승당(僧堂, 禪堂)의 좌차(座次, 좌석 배치) 서열 제1위이기 때문에 수좌를 '제일좌(第一座)'라고도 한다. 수좌(首座, 승당의 첫 번째 자리)라는 명칭도 그런 뜻이다. 또 좌차(座次, 앉는 차례)의 '으뜸'이라는 뜻에서 좌원(座元)이라고도 하고, 선당의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선두(禪頭), 대중 가운데 상수(上首)이므로 수중(首衆), 또 판수(板首, 장련상 판의 첫째 자리)라고도 한다. 6두수의 2위는 서기(書記)이고 3위는 장주(藏主, 지장)이다.

승당이 크고 대중들이 많을 때에는 두 명의 수좌를 두는데, 이를 전당수좌(前堂首座)와 후당수좌(後堂首座)라고 한다. 이 중에 전당수좌가 상위이고 후당수좌는 부(副)로서 전당수좌를 보좌한다. 승당(선당)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앞을 전당, 뒤를 후당이라고 하는데 그 기점은 승당에 모셔져 있는 문수상으로 한다.

그렇다고 전당수좌는 전당에 있는 납자들만 관장하고, 후당수좌는 후당에 있는 납자들만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 승당은 모두 전당수좌가 총괄하고 후당수좌는 전당수좌를 보필할 뿐이다. 승당을 출입할 때에도 전당수좌는 앞뒤 문을 구별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지만, 후당수좌는 후문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이렇게 전후 양당(兩堂)으로 나누는 것은 승당의 규모가 크고 납자들이 많을 때이다.

특히 송대(宋代)에는 한 승당 내에서 많은 납자들이 생활했다. 보통 300명 이상이 있었는데, 많을 때에는 천 명 이상이 있었다. 예컨대 대혜종고(1089~1163) 선사가 항주 경산사(徑山寺) 주지(방장)로 있을 때에는 무려 1700명이나 운집해 있었다. 천승각(千僧閣)이라는 대승당을 신축했을 때에는 그곳에 850명가량 기거했다. 한 승당에 이렇게 많은 납자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수좌 한 명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 총림이나 선원에서도 수좌의 서열은 방장이나 조실 다음이다. 수좌직을 맡고 있는 이를 '수좌'라고 부르는데, 한편으로는 젊은 스님에게도 법명 앞에 수좌를 붙여서 '○○수좌'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많다. 수좌라고 하는 존칭이 하향하여 젊은 스님에게도 미칭(美稱)으로 덧붙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좌 외에 별도로 입승수좌(立繩首座)라는 소임이 있다. 총림에 덕(德)이 높은 스님이 있을 경우 별도로 수좌 한 명을 더 두는데, 그를 '입승수좌'라고 부른다. 입승수좌는 때론 주지를 대신하여 법문을 하기도 한다. 전임 주지나 전임 수좌를 역임했으므로 수좌보다는 상위이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승당의 제일좌인 수좌를 돕는 입장이다.

(2) 서기(書記=書狀)

남송 때 '지전' 추가로 6두수
'수좌', 서서 두수의 우두머리

서기는 서서(西序) 6두수(六頭首) 서열 가운데 두 번째다. 당 북송 시대에는 주로 서장(書狀)이라고 했고 남송시대에는 서기라고 했다. 또 제1좌인 수좌에 이어 제2좌(第二座)라고 한다. 서기는 문한(文翰)을 담당하고 있는 소임이다. 총림의 대내외적인 문서 담당으로 관청에 보내는 공문(公文), 표문(表文), 소문(疏文, 보고문) 등을 작성·송부(送付)·관리한다. 그리고 선원의 각종 법회와 행사 때 사용되는 취지문, 축원문, 방함록, 결제방, 다탕방(茶湯榜) 등 방문(榜文)도 모두 서기가 쓴다. 따라서 서기는 공문 작성 능력과 문장력, 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기가 작성하는 문장은 총림 전체의 지적 수준과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관청이나 사대부들에게 문한(文翰)을 보낼 때에는 문장이 조리가 있고 우아해야 한다. 문장이 옹졸하고 천박하면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다.

(3) 지장(知藏)

지장(知藏)은 당 북송 때는 장주(藏主)라고 했고, 남송 때는 지장이라고 했다. 지장은 장전(藏殿), 즉 장경각을 관리하고 경전과 어록 등 전적을 관리·대출해 주는 소임을 말한다. 오늘날의 도서관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종 사원의 장전(장경각)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경각과는 다르게 경전이나 대장경, 경판(經板)이나 전적들을 보관·관리하는 역할보다는 도서관처럼 열람과 대출해 주는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4권, '장주(藏主)' 편에는 "장주(藏主, 지장)는 금문(金文, 경전)을 관장한다. 정식으로 궤안(几案, 책상)을 마련하고 차(茶湯)와 기름(油火)·등불(香燭)을 준비하여야 한다. 장주는 잘 생각하여 통로에 알림장을 붙이되, 본당(선당) 및 경전을 보고자 하는 대중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들이) 간경하고자 책상을 청할 때는 먼저 간경당 수좌(장주)에게 아뢰되, 자리(案位)가 있는지 여부를 물은 다음 청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장주는 항상 책상과 차(茶), 기름(油)과 불(火), 향촉(香燭)을 준비하여 경전을 보고자(看經) 하는 대중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록은 북송 말경에 장로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종 사원에서도 장경각을 설치하여 납자들이 경전이나 어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선당 내에서는 경전이나 어록을 볼 수 없고, 좌선 시간에도 볼 수 없다. 당대(唐代)는 잘 알 수 없으나 〈선원청규〉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당대에도 북송 때처럼 한정적으로 간경·독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지객(知客)

지객(知客)은 6두수의 하나로 빈객 접대를 맡은 소임이다. 객승(客僧)과 신도들을 영접·안내하고 방사(房舍) 등을 배정·관리한다. 그래서 지객을 객전(典客)·객사(客司)·전빈(典賓)이라고도 한다.

자각종색의 〈선원청규(禪苑淸規)〉 4권 '지객' 편에는 "빈객을 맞이할 때는 공손히 해야 하며, 망담(妄談)으로 무익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모름지기 주지와 지사들, 두수와 대중들의 아름다운 일을 찬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심(善心)을 내게 할지언정 밖으로(손님들에게) 가추(家醜, 사원의 단점)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지객(知客) 밑에서 일을 거드는 행자를 객두행자(客頭行者)라고 한다. 객승은 타 총림에 들어서면 먼저 지객을 찾아야 한다. 하루만 묵고 갈 것인지 입방하러 온 것인지를 밝힌 다음 지객의 안내로 단과료(旦過寮, 객실)에서 묵는다. 그러나 객승이든 입방승이든 간에 3일 이상은 묵을 수가 없다. 입방승은 3일 안에 입방 절차를 마치고 승당으로 들어가야 하고, 객승은 늦어도 3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객실의 규정이다. '단과료(旦過寮)'도 '하루만 묵고 가는 곳'이라는 뜻이다. 재미있는 이름이다.

(5) 지욕(知浴)

지욕은 욕실(목욕탕)을 관리·담당하는 소임이다. 6두수의 하나로 '욕주(浴主)'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욕두(浴頭)'라고 하는데, 욕두는 지욕 밑에서 욕실의 일을 돕는 하급 소임으로 주로 행자들이 맡는다.

목욕하는 날은 정해져 있다. 〈칙수백장청규〉 '지욕' 편에는 "동절기에는 4일·9일·14일·19일·24일·29일로써 5일마다 한 번씩 목욕을 하고, 하절기에는 매일 목욕을 한다(寒月五日一浴, 曙天每日淋汗)"고 규정하고 있다. 율장 〈사분율〉에는 15일에 한 번 목욕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해인사의 경우 동(冬)하절기에 관계없이 15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

(6) 지전(知殿)

지전은 불전(佛殿, 대웅전) 담당이다. 불전의 향화(香火)와 불공(佛供), 기도, 관리 등 불전에 관한 모든 것은 지전이 담당한다.

북송시대에 편찬된 장로종색의 〈선원청규(禪苑淸規)〉에는 '전주(殿主, 佛殿의 主)'라는 소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주가 바로 지전이다. 그러나 북송시대 전주는 6두수에 속해 있지 않았다. 북송시대 전주 즉 지전(知殿)은 중위직으로 중요한 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전(佛殿, 대웅전)의 위상이 미미했음을 시사한다. 지전이 상위직인 6두수에 포함되는 것은 남송 때인데, 이때 불전의 위상은 급상승하여 법당의 위상과 같았다.

우리나라에는 지전(知殿)에 대한 이칭이 매우 많다. 그리고 한자 표기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知殿'을 흔히 '持殿'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목탁을 잡고 있으므로 '가질 지(持)'자를 써서 '持殿'이라고 써야 타당할 것 같지만, '知殿'이라고 써야 한다. 여기서 '知'는 '담당하다' '맡다'라는 뜻이다. '전(殿)'은 불전(佛殿)을 뜻한다. 6두수 가운데, 장경각 담당을 知藏이라 하고, 접빈담당을 知客이라고 하며, 욕탕 담당을 知浴, 불전 담당을 知殿이라고 한다. 모두 '知'자를 쓴다. 필자가 전거를 제시하면서 '知殿'이라고 써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어도 오히려 무식하다는 눈치이다. 여전히 각 사찰의 용상방에는 '持殿'이라 쓰고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노전(爐殿)'과 '부전(副殿)'이 있다. 노전(爐殿)은 대웅전이나 적멸보궁의 불단을 맡은 소임이다. 대웅전이나 적멸보궁의 향로(香爐)를 관리하는 당우인 향로전(香爐殿, 香閣)에서 따온 말이다. 부전은 큰 방(즉 衆寮) 불단과 큰방 관리를 맡은 소임이다.

그리고 6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방장실의 시향시자(侍香侍子=燒香侍子, 비서실장)도 두수급이다. 명대 청규인 행원(行元)의 〈총림양서수지(叢林兩序須知)〉에는 시향시자가 두수에 들어가 있다.

〈민족사 대표〉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㉟ 능엄경(楞嚴經) 2

아난이 부처님께 삼관법문을 청했지만 부처님은 답변대신 왜 애욕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했는지 물으신다.

“아난아, 너와 나는 혈육이며 동기간이다. 그런데 너는 처음 발심할 때 나의 법 가운데서 어떤 원만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았기에 세간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출가했는가?”

그러자 아난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32상을 뵙고 청정하신 모습이 너무 좋아 갑자기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 출가를 결심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그런 아난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흠모하였느냐고 되물으신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세존을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내어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를 버리기로 발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냉정한 눈빛으로 아난을 보며 말씀하신다.

“네 말대로 진실로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은 너의 분별하는 마음과 견해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지만 너의 마음과 견해가 있는 처소를 모른다면 모든 번뇌를 항복 받진 못하리라. 이를 비유하면 국왕(여래장)이 도적(근본번뇌, 아난이 일으킨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의 무리가 나라를 휩쓸 때, 군대를 풀어 진압하려면(삼관정진수행) 현재 도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곳을 알아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네가 생사를 마치지 못하고 항상 육도윤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너의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눈(見=안목)이 그 허물의 근원지다. 그러니 아난아, 너의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난은 당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범답안이며 부처님은 바로 삼관수행에 대해 법문을 설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다. 어쩐지 점점 이 망신스런 상황이 깊어져 가는 듯 했다.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더 이상 오답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변명하듯 말한다.

“세상에는 10가지 종류의 중생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바로 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청련화 같은 눈이 부처님 얼굴에 있듯이 제가 지금 보아 아는 저의 눈을 관찰해 봐도 제 눈은 제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아난이 처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런 아난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부처님은 “네가 머물러 보는 곳은 기원정사다. 이곳에서 보는 강당과 숲은 지금 어느 처소에 있느냐”고 묻고, 다시 “강당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있느냐”고 묻는다.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 대중을 보고, 숲을 본다”고 말하자, “그 숲을 어떻게 보는가?” 다시 부처님이 물으니 “창문이 열렸으니 본다”고 답하는 아난을 향해 금색 팔을 뻗어 정수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강당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은 강당 안의 여래를 보지 못한 채 강당 밖을 보는 경우가 있는가?” 물으시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난이 말한다.

“아난아,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너의 마음은 일체의 대상경계를 만날 때마다 명료하게 인식해 안다. 그러니 너의 몸 깊은 곳에 있는 심장, 간장, 비장, 위장은 보지 못해도 겉으로 드러난 손발톱, 머리카락이 자라고 근육이 움직이고 맥박이 요동하는 이런 일을 다 알아야 하는데 왜 알지 못하는가. 답해 보라”

그러자 아난은 “몸 밖에 있다”고 답하지만 부처님은 이 역시 아난의 견해를 수수께끼 풀어가듯 질문을 던지며 아난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는 7처증심(七處徵心)의 교수법을 사용한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 마음은 몸 밖에 있다. 마음이 눈에 있다. 마음이 명암을 분별한다. 마음은 인연이 화합하는 곳을 따른다. 마음은 중간에 있다.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다”며 아난이 7가지 장소에 애착하는 마음을 모두 깨뜨려주는 가르침을 준다. 아난이 오온을 마음으로, 또 실제적인 ‘我(아)’로 착각하고 있는 아집을 깨뜨려 주려하지만 아난에게 두려움이 먼저 일어날까봐 걱정하며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며 안심시키는 대목은 제자를 향한 부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속히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허둥거리고 있을 때 허망한 식심(識心)은 마음이 아니라는 7처증심의 가르침은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혀 여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스펙’ 쌓기보다 ‘마음’ 닦기가 중요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㉞ 진심 닦아 능력자 되다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 ‘배워라, 스펙을 쌓아라, 자격을 갖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의 진심(嗔心 · 성내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왜 안 되나’ 하는 마음을 해탈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닦아야 비로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배려심이 곧 리더십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리더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 역시 마음속에서 ‘안 된다, 못 한다’는 생각이 ‘된다, 할 수 있다’로 바뀔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심 해탈은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선지식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석가여래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구족한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구하려 하면 다 구해지는 것이다. 얻으려 하면 다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하지만 아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안 된다’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 된다’라는 진심만 없다면 아니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언제인가 정미소를 하는 도반이 찾아와 선지식께 여쭈었다.

“제가 허약해서 쌀가마를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여 사람들이 ‘저것 하나 못 들면서 정미소 사장이야?’ 하며 업신여깁니다. 제가 쌀가마를 마음대로 들 수 있다면 정미소 직원들을 통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금강경〉 공부를 잘 한다면 쌀을 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면 안 될 것 없지. 정미소 앞, 늘 자주 다니는 길목에 쌀 한 가마니를 놓고 지날 때마다 내가 저것을 마음대로 못 들지 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보아라. 처음에는 그 생각이 바쳐지지 아니하지만 꾸준히 바치는 연습을 하면, 결국 무거워 못 든다는 생각이 없어지며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무거워 못 든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100일 동안 꾸준히 바친 결과 결국 불가능하던 쌀가마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장사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안 된다, 못 한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 자신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착각이거니 하고 부처님께 바치다 보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된 일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출가 수도로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생을 병약한 사람, 끈기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중노동인 목장 일로 견디기 힘들 때마다 ‘나는 허약하다’ ‘나는 끈기가 없어 한 가지 일을 오래 못 한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건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들 어찌 없어지겠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착각이요, 없는 것이기에 부처님께 바친다면 본래 없는 자리 곧 부처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해탈하게 된다면 아니 될 일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못한다는 생각도 착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면 못 할 일도 없을 것이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100만 배(拜)와 ‘이 뭣고’

오늘은 대둔산 태고사(太古寺)서 100일 동안 체중이 15kg이나 빠지면서 하루 3천배씩 30만 배를 시작으로 100만 배 감사회향(感謝回向)을 한 뜻깊은 날이다.

멸아만시하심즉성불(滅我慢是下心卽成佛)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최고다 하는 아만심서 벗어나 머리가 땅에 닿게 낮추어 하심(下心)이 되어야 부처를 이룬다. 즉 아무리 도(道)에 이르렀다 해도 조금이라도 아만병(我慢病)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성불(成佛)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중생이 아만서 벗어나는 길은 그 원인이 되는 사번뇌(四煩惱)인 아치(我癡),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를 다스려서 거짓 나(我)이자 제 7말라식인 자아(自我)를 죽이고 본래 청정한 참나(眞我)가 되는 것이다. 그 자아는 대상(對象)과 연(緣)이 합(合)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무아(無我)인 것이다. 또한 무명으로 참나를 모르고, 자아(自我)의 상(相)놀음에 머무르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근본으로 삼아 항상 거짓 자기에 집착한다.

뱁새는 깊은 숲속에 앉아 있어도 일지(一枝), 한 개의 나무 가지면 족하고, 고래가 대해(大海)의 물속에 산다 해도 그 배만 채우면 그만인 것이다. 무엇이든 자기의 그릇을 모르고 비우려 하지 않고 더 채우려 하는 데서 화(禍)가 따르는 법이다.

중생은 불성의 평등함을 망각하고 타인에게 교만하고 경시하며 스스로 지고하다는 마음을 일으켜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된, 즉 목에 기브스하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만의 독특한 사량(思量) 분별심(分別心)의 안경을 끼고 시기와 질투로 온갖 시시비비를 만들어 낸다.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지녔음에도 더욱 더 채우려는 욕심이 강해 언제나 더 채우려는 욕망만큼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

무명(無明)인 내 한 생각이 자신의 습관을 익혀놓고 그것에 중독돼 업(業)이 되면 그것이 육도 세계로 나를 끌고 다닌다. 즉 자기가 생각의 덫을 놓고 그 속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중생 허물이며 기약 없는 윤회이다. 그래서 연기의 씨앗인 그 한 생각을 지우면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던 생사 없는 내 고향(故鄕)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장 난 생각들을 치유하려면 그 생각이 나온 그 근본 자리에서 ‘이 뭣고’로 바로 고쳐 돌려놓아야지, 그 생각을 고치려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 생각의 업(業)만 더욱 더 쌓여진다.

그래서 나의 육근으로 인(因)하여 다겁생래로 익혀진 습(習)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출가이며 깨달음인 것이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욕계에 태어난 이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비우고 또 비워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수행법은 오직 ‘이 뭣고?’ 뿐이다.

〈원각경〉에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환영(幻影)을 여의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또한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 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를 의심 없이 믿고 신심이 바탕 되어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이나 마음의 욕망에 빠지지 말고, 탐욕의 근원을 ‘이 뭣고’로 녹이며, 괴로움 즐거움 슬픔 기쁨 등의 경계에 직면할 때 염기즉각(念起卽覺), 각지즉무(覺知卽無)라는 말처럼 그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 하면 바로 지워 지면서 그 주체인 참나와 하나가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반야바라밀의 행(行)이 되는 것이며, 지혜광명을 생활 속에서 쓰게 되는 것이니 무엇을 밖에서 구할 것이 있겠는가?

모든 근심은 애욕서, 재앙은 물욕서, 허물은 경망에서, 죄(罪)는 참지 못해서 생긴다. 오늘 하루도 생활속에서 인욕의 산을 넘어 해탈의 길로 가는 ‘이 뭣고’의 지혜를 청하길 권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고암대종사 열반 3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미래

올해는 자비보살로 존경받는 고암상언 대종사의 열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용성진종 조사의 선맥을 이은 대선사이자 종단의 계맥을 전수한 대율사이며 종정을 세 차례나 역임한 현대한국불교의 고승입니다. 고암문도회에서는 대종사께서 한국불교에 끼친 각 방면의 영향과 공덕을 살펴보고 그 계승을 다짐하는 학술세미나와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추모 학술세미나＊

일시_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1시~6시
장소_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서울 조계사 내)

＊추모 다례재＊

일시_ 2018년 10월 23일(음 9월 15일) 오전 10시
장소_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

“고암대종사 일대기” 방영 : 불교TV(BTN) 2018년 10월 23일

발표 논문

• 종정제도의 기원과 전개_김응철
• 한국불교의 계맥과 계단 개설_이자랑
• 한국불교의 선교율 동수론(同修論) 고찰_이종수
•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역사와 전망_서재영
• 한국불교에서 용성문도의 위상_마성
• 고암상언의 생애와 사상 탐구_김광식
• 일화로 살펴본 고암상언의 삶과 생각_이학종

고암문도회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나누며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한다.

〈선생자경〉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 화

- 작품성이 뛰어난 칠성여래보살도,염라대왕도 필요하신 분 (조건부)
- 칠성여래보살도 : 조선말. 194cm×177cm
- 염라대왕도 : 중국산, 300여년전 작.95×185

010-5021-2391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검색!!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왕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범음범패 교육도량

각단예불 및 천수바라
육법공양무(작법)나비무
법고,송주북,정근북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육임선봉문, 귀장술 배우실 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다
육임 단기간 3개월 코스로
성공의 기회
정확한 점괘를 뽑을 수 있다
신을 받아도 상담이 안되시는 분
절 포교에 힘드신 스님
모두 연락주세요

학장님 010-8973-7994
무 산 010-9150-0029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수준높은 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부터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 박사 강성진 교수
010-4844-7002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

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 정치외교학
2. 경제학
3. 문화예술학
4. 철합,문학
5. 종교학
6. 체육학
7. 대체의학

상담 : 070-8844-2030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특수 치방

(1)유방암 (2)편도암
(3)식도암 (4)갑상선암

암 질병에
고생하시는 불자님
성심껏 돌봐 드리겠습니다

010-4547-0023
카톡 ID : MRS774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사람이 부처님을 믿지 않으며,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비법(非法)을 행한다면,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수마제장자경〉



이박사 공인사무실 이전
(www.이박사.com)
- 그동안 서울 사무실 방문 스님 감사 드립니다.
- 사찰전문 이박사 원주시로 이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직통: 이박사손전화)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48.성일아파트상가108호(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35평,텃밭,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찰전문이박사 원주이전
- 원주시 단계동 상가로 이전
- 스님.보살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 지나가실 때 방문해주세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10-7347-1010(직통:이박사)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원주이박사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5
- 대지 : 740평
- 건물 : 법당 12평, 요사채 50평, 무학대사 자연동굴 약70평 (무속인 기도처)
- 불교용품 판매 가능
- 보증금 : 3천에 월세3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2078-9595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시내중심 대형 포교원
- 위치 : 울산광역시 범서읍 구영로132
- 포교소 : 110평 5층 상가 건물, 법회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구영리 신도시 10만 세대 밀집지역, 공원 옆, 대형 주차장 2곳, 4차선 도로 옆, 대형 탑마트(100m)
- 조건 :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백십만원, 권리금 2천 5백만원

010-6525-2155/010-9808-4568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 지하철 근접
- 4층 건물 중 2층 34평
- 총무실1.침실. 화장실2.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월세 4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 5년째 법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비어있음

010-8448-67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 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방2,주방,화장실,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인접(도보 20분, 차량 +2~3분)
- 버스정류장(도보 1~2분)
- 주차10대이상, 텃밭, 뒷산
- 즉시법회 가능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시설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각(산신탱화), 상담실, 주지실, 공양간
- 최상의 시설, 2층 60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능)

010-4047-0134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해남읍에서 5분 거리
- 대지 : 1,500평 남짓
- 시설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등 모두 방 10칸
- 외부 : 부속사, 대영주차장 등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 모두 합 2억 9,500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시청부근 자동차로 10분 거리
- 대지 : 200평, 100년 사찰, 주차시설완비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 20평
- 전세 : 2억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9천 오백만원

전화:010-6241-8499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마산 근교
- 대지 1,000평 / 임야 4,000평 총 5,000평, 법당 37평, 요사 65평
- 천혜의 명당이며 지하암반 석수있고 수목장하기 좋은 위치임
- 마산근교 10분 거리 단독도로와 경관이 좋습니다
- 가액 : 11억원.대출 : 2억 5천만원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 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동구 범일동 1438-316번지 만리 산하 (수덕사)
- 대지 : 90평~ 여분 30평
- 법당 30평 요사채60평, 산신각 10평 마당등등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580-5734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 70평 (2층건물)
- 1층 : 30평 (방3개, 실내화장실 2개)
- 2층 : 25평(법당, 상담실)
- 도시가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천, 월 80만원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범천동
- 서면에서 차로 5분 절 마당에 주차
- 대지 : 300평+700평
- 법당, 산신각, 종각, 요사체
- 가액 : 10억
- 전/월세 가능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길52
- 위치 : 신협, 농협, 상가, 아파트 밀집(역세권)
- 공항 20분, 지하철, 시내버스, 열차 5분 거리
- 상가건물(168㎡) 2층 건물 전체(옥상 포함) 단독 사용
- 법당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신중, 소불 200불
- 탱화(철성, 산신, 용왕), 범종, 좌대법고대1, 중1)
- 경명다라니 大1, 방송용무선앰프, LED전등교체
- 친견실:神명상실, 편백황토방, 건강수련실
- 주차:농업지원센터 앞 주차시설 완벽
- 현)법회중,냉온(방음시설) (광열비만 투자)
- 보증금:2천 월세(無) 시설4천8백만원

스님(직)010-4608-2525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 가액 : 전화상담

010-3828-9898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밥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바다와 10분 거리
- 대지 324평,건물40평2동,임법당
- 공업용, 농업용 전기공급
- 별도 산신각, 지장노천불, 공양간,창고2개,방6개, 넓은 거실
- 사찰 마르지 않는 우물 있음
- 인근 공기 맑고 조용
- 가액 : 1억 7천만원

010-2008-0377

전망 좋은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바닷가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앞, 옥상 사용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시장공영주차장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 장소 최적. 3층 건물 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 주방. 욕실. 방 1. 창고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
- 시설비1,000만원, 절충가
- 보살님.법사님.자리로도 명당

010-7583-1235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박재완의 PhotoEssay



꽃이고 싶다

아팠던 날들 생각하면
꽃이고 싶다
부끄러운 날들 생각하면
꽃이고 싶다
죄 많은 날들 생각하면
꽃이고 싶다
그렇게
저무는 저녁이면
나는 단지 꽃이고 싶다
길이 없는 새벽이면
나는 오늘뿐인 꽃이고 싶다
바람에 돋고 바람에 지는
꽃이고 싶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⑩ 당뇨병의 음식요법과 저혈당

노인 당뇨병, '식이요법' 가장 중요

당뇨병에는 음식요법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인슐린 비의존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본은 적게 먹는 것으로서,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면서 당뇨병이 악화된다. 게다가 과식하면 소화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생겨나므로 소갈(消渴)의 근본 원인인 열이 많아져 문제가 커진다. 더욱이 소화 불량이 되면 그것이 맺혀서 열을 일으키므로 적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이다. 어떤 음식이든 포식이나 과식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에 해로운 음식, 좋은 음식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에 가장 금하라고 한 것은 술, 짠 음식, 밀가루 음식으로서 이것만 잘 지키면 약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고 하였다. 술을 절제하고 있다가 한 번 왕창 마셔도 혈당치가 확 올라가는데, 과음한 뒤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담배도 해로우니 담배를 피우는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에 훨씬 잘 걸리고 사망률도 높다. 그밖에도 굽거나 볶은 음식, 꿀, 설탕, 사탕, 초콜릿,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의 단 음식, 고추, 마늘 등의 열성 음식 그리고 각종 통조림을 피해야 한다. 국수를 좋아해서 끊기 힘들다면 메밀국수, 칡국수를 먹어야 한다.

좋은 음식으로는 곡식으로 보리, 팥, 좁쌀, 콩, 율무, 녹두, 참깨 등이고, 채소로는 배추, 양배추, 무, 상추, 미나리, 시금치, 마, 오이, 당근, 호박 등이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괜찮고, 과일로는 당이 적은 토마토가 좋다. 생선이나 살코기 등의 고단백 음식도 필요하다.

당뇨병에 좋은 밥은?

소갈은 뱃속에 열이 쌓여 있는 병이므로 쌀밥보다 보리밥이나 팥, 좁쌀을 섞은 밥이 좋다. 보리는 서늘한 성질로서 열을 내리므로 한의서에 소갈을 치료한다고 나온다. 또한 섬유질이 많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므로 비만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변비 등이 있는 중, 노년 분들에게 좋다. 팥은 약간 차가운 성질이며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성질을 지녔기에 열을 가라앉혀 주므로 당뇨병에 좋다.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속의 물을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므로 오래 먹으면 마르게 하기에 배가 나오고 퉁퉁한 사람에게 어울리며 열성체질에 적합하다. 좁쌀도 서늘한 성질로서 비위장에 쌓인 열을 없애주는데, 특히 묵은 좁쌀은 찬 성질이므로 위장의 열을 없애주어 소갈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

당뇨병 환자에게 인삼은 어떨까?

인삼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소갈을 치료하는 처방에도 인삼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소갈의 원인이 열이므로 열성인 인삼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소갈이 오래 되어 열이 줄어지고 특히 양기가 허약하거나 폐의 기가 허약하여 땀을 많이 흘리고 하체가 냉하며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인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심장의 음기가 부족하여 허열이 나고 입이 마르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에도 인삼을 단독으로 쓰면 안 되지만 음기를 보충하는 약재들과 함께 쓰면 된다. 그렇지만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인삼을 피해야 한다. 홍삼도 마찬가지다.



소갈은 뱃속에 열이 쌓여 있는 병이므로 쌀밥보다 보리밥이나 팥, 좁쌀을 섞은 밥이 좋다.

밥은 보리, 팥, 좁쌀 섞은 것 좋아
마음 화평하면 당뇨병도 예방돼

당뇨병에는 징심식려(澄心息慮)해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근심걱정을 끊어야 하니,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풀어주고 복잡한 감정들을 잘 조절해서 마음을 화평하게 가져야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저혈당이 더 무섭다

정상인의 혈당치는 공복시와 식후에 70-150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혈당치도 체온, 혈압,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높아도 문제지만 낮으면 더욱 무섭다. 저혈당은 혈당이 정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범위의 최소치보다 더 떨어진 경우로서 55 이하인데, 매우 위험하다. 원인은 인슐린 과다 투여, 경구 혈당 강하제와 주사제 동시 투여, 금식 시 투여, 심한 운동 특히 지속적인 근육 운동, 알코올 섭취, 다른 약제 투여, 심한 영양 결핍 등이다.

어떤 사람에게 저혈당이 잘 올까? 당연히 노인이다. 아침 공복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음식을 고루 드시지 않고 고기와 생선을 무조건 피하는 경우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등이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포도당 신합성이 감소되므로 무조건 금해야 한다.

저혈당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혈당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급성 저혈당은 교감신경계의 반응으로 불안, 초조감, 공복감과 함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맥이 빨리 뛰고 심장이 뛰며 떨림증도 나타난다. 그리고 뇌세포에 필요한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므로 초기에는 피로감, 짜증스러움이 나타나고 진행이 되면 두통, 졸림, 복시 현상, 일시적인 감각과 운동의 실조, 경련 등이 나타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만성 저혈당에서는 진행성 혼란, 행동 이상과 함께 졸리거나 자꾸 잠이 오는 증상 등이 나타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발작과 혼수가 생길 수도 있다.

저혈당 혼수는 인슐린을 많이 맞았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흔히 나타난다.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힘이 갑자기 빠지고 식은땀이 나며 손발이 떨리거나 가슴이 뛰며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빨리 사탕을 먹거나 오렌지주스를 마셔야 하고, 혼수에 빠지면 빨리 포도당 정맥주사를 맞도록 해야 한다.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다면 인슐린 투여량이나 시간, 영양부실, 금식, 심한 운동 등을 주의해야 한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財團法人
茗園文化財團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은

- 한국차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선생의 뜻을 이어 전통다례예절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다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차문화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입니다.
- 우리 차와 예절의 생활화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전통다도예절지도자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명원문화재단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72 / 전화 02) 730-7191~2
명원다례전수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07 / 전화 02) 742-7190~2

(재)명원문화재단은 국가가 지정한 차문화산업 교육훈련기관이며 전문인력양성기관입니다.

九龍, 금룡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 용왕단 조성 및 연못 - 분수기능
- 소원성취단(소원지.소원패등)
- 소장사찰 : 여수향일암 강화보문사등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7〉 몽롱함, 들뜸, 불만족 (장애II)

'놓아버림' 목적 마저도 내려 놓아라



몽롱함과 졸음

이제 수행의 또 다른 장애인 해태와 혼침, 즉 몽롱함과 졸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전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수행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몽롱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 중에 졸음이 오는 원인은 어쩌면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 중에 졸음이 온다면 자신의 체질에 비해 너무 덥거나 어쩌면 너무 추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날씨가 자신에게 맞는 곳에 머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몸이 건강할 때 좋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롱함과 졸음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을 지루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수행이 지루할 때 수행의 의욕을 일으키는 몇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수념(佛隨念), 부처님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반조하면 수행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한 선행을 떠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일이 있다면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되새김으로써 마음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 '짜가누사띠' 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되새기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쉽게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서양에는 수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행 용품 판매는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수행용 방석이 새로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편리함을 취하는 것도 결점을 찾는 마음을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점을 찾는 것, 불평하는 것,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에너지의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몽롱함과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하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아오면서 불평이 얼마나 무익한지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불평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려면 결점을 찾고 불평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불평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마음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수행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몽롱함과 졸음을 극복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전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저는 몽롱함과 졸음을 저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기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생각, 갈등, 의지력은 우리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소모합니다. 졸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 갈등과 분투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며 몽롱함과 졸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마음챙김으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챙김에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몽롱함과 졸음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졸음이 사라진 후에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워집니다.

들뜸

또 다른 장애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들뜸입니다. 저도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수행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에게 이것은 다분히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의 호르몬이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행 중에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수행자의 노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고요해지려는 노력으로 인해 동요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밀어내려고 하면 마음은 소란스러워집니다.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 마음은 쉽게 고요해집니다.

항상 잔소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무섭게 꾸짖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상대를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상 배려해준다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서

수행과정서 찾아오는 여러 장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 이어져
그대로 놓아둘수록 고요해지지만
장애 제거 원하면 또 다른 갈애

달아나려 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망상에게 화를 냅니다. '어서 밖으로 나가. 나는 수행자야. 나는 망상하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망상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추해집니다. 망상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망상과 함께 지내겠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망상은 자신의 망상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망상을 일으키는 어떤 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苦)이고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자신을 당혹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애롭게 대하십시오. 그러한 마음가짐이 괴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괴물에게 원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불만족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다 미세한 번뇌가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수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수행의 단계가 아름다운 호흡의 단계나 니밋따의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수행에서 일어나는 행복감을 되풀이해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큰 행복감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러고는 아잔 브람의 수행법을 따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그저 기법으로 '놓아버리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동기는 기대감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수행에서 커다란 장애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수행합니다. 이전의 수행이 좋았다면 다시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수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명상을 체험한 것은 그 전에 했던 수행의 대가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수행할 때마다 언제나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십시오. 수행의 대가가 지금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내심은 수행의 과정에서 몹시 귀중한 덕목입니다.

인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내심은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것은 인내라기보다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현재 이 순간을 놓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불만족은 수행의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난다 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밤새 조금도 눕지 않고 수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침내 포기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깨달으려는 노력을 포기했더니 비로소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갈애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애는 갈애,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행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은 틀림없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하면 현재의 수행에 만족하게 됩니다. 현재의 수행에 만족하면 수행의 과정에 괴로움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수행하면 취착이 사라지고 취착의 사라짐을 원인으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하지 않고 좌절감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즐겁다면 그 수행은 사성제의 세 번째인 고멸성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에 기반을 둔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놓아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제거되기를 원하면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아잔 브람의 놓아버리기 방식을 채택한 것뿐입니다.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알고 있고 너만이 해결 할 수 있어

마음을 밝히고 안으로 구하려면…

질문 스님께서는 늘 '오직 자기 마음 안에서 구해서 밝혀 나가고 깨쳐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밖으로 치닫기 일쑤고, 보이는 물질세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수행하면 그렇게 안에서 구하고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요.

답변 만날 한 말이 그 말인데요, 뭐.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아주 진짜로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급박할 때, 물에 빠져 다 죽어 갈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그 정도가 돼야 '아이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아주 그냥 절박하게 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아주 절박하게 합니다. "알았어. 절박하게 관해봐!"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전화가 또 뚜르르 옵니다. "아이구, 전화하고 나니까 그냥 멎었어요.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응,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둘이 아니게 돼서,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 전깃줄이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하고 내 마음의 전깃줄하고 같이 합쳐 봤으니까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낫게 했다, 내가 낫게 했다' 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어야죠.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네?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을 이끌어 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어야죠.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이나 각처의 스님네들이 이끌어 주는 그것은 역시 길잡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길잡이밖에 안 되는데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스님네들이 방편을 안으로 두게끔 썼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 기도하고 빌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가톨릭교고 기독교고 전부 그래요. 하여튼 모두 바깥으로 기도하게 하고 바깥으로 믿게 하거든요. 주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진짜 자기부터 알아야 일체를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모두 타의에서 구하고 있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알라신교니 티베트 불교니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그런 사람들 다 만나 봤고, 또 어떻게 하나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엇나가는 격이 많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아예 뒤바꿔 놓고 가르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경 한 번을 본다 하더라도 경을 달달달 외워서 그 이름을 알고 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진실한 자기, 못났든 잘났든, 정말 왜소하고 못나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자기 원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소 그 자체 불성은 변하지도 않는 거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자체의 불성은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를 떠난 자립니다. 그러니 실망하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내면으로 믿고, 당장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알고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길 믿고 진정코 진실한 마음으로 해 보세요, 안 되나 되나.



그림 · 최주현

호국 불교 정신에 대해서

질문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불제자들은 항상 겸손하고 숭고하게 호국 불교를 염원하면서, 한생각을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써, 나가서 몸뚱이로 돌아치는 게 아니라 항상 앉아서 염원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스님께서 가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처럼 공부가 미천하고 이 마음공부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초심자들은 호국 불교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침을 구합니다.

답변 우리가 호국 불교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호국 불교라는 이름도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느니만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만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겠기에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인공!' 하면 천체 일체 만물만생의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봐서,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오관을 통해서 볼 때에,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한생각 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으로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마음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참, 세계적으로 어느 생명이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몸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도, 만약에 과학자들의 몸이라면 바로 그 몸이 내 몸이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공 안에는 무지하게 수많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있으며 진여의, 무루의 그, 정말 무궁무진한 자신의 그 신들이, 무형신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으니 내 한생각에 무조건 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량을 모른다면 앉아서 한생각을 내서 우주를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룰 수 없고, 내 마음 하나 다룰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말이지 앉아서 호국 불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시게 된다면 바로 방방곡곡에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발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참, 그 마음의 향운공이 어디고 닿지 않는 데가 없고 양식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향과 같이 풍겨 나가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은, 독재는 평화스럽게 이루도록 다루어 나가고, 인색하지 않게, 풍요롭게 다루어 나가면서 사랑을 하게끔, 도의와 의리를 지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준다면, 바로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돼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바로 우주와 더불어 상응을 할 수가 있으니 여기는 그대로 천국이 될 수 있는, 아니 물질과학보다도 정신과학으로, 또 문명으로도 발전이 되고 아주 풍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나라도 가난할 것이요, 전체가 나 아님이 없다는 소리는 언감생심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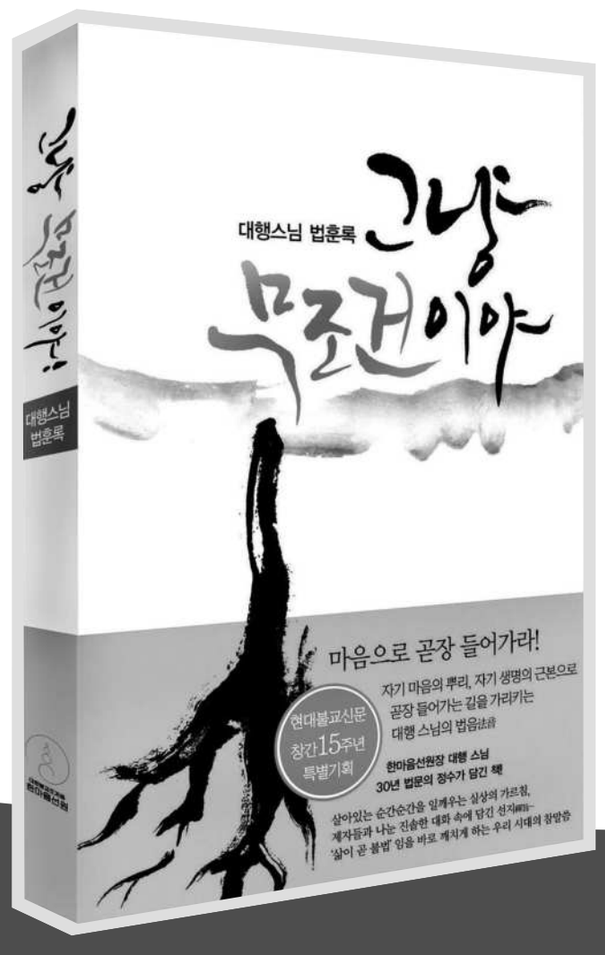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참뜻을 알아서 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심과 무심이 어떻게 해서 유심과 무심이라고 이름을 두 개를 지었을까. 무심은 바로 무루의 그 참자기의 마음, 예전에도 얘기했죠, 금강 자석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금강 자석과 같은 움죽거리지 않는 능력으로, 유심으로서는 아주 어떤 분야든지 가서 일을 할 때에 끊고 맺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有)의 법으로만 기울어져서도 아니 되고 무의 법으로만 기울어져서도 아니 되고, 양 개체를 다 한꺼번에 한 주먹에 쥐고 주먹을 불끈 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야만이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 부처는 법신의, 또 법신의 그 능력으로, 화신으로서, 보신으로서 바로 호국 불교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전자에는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들, 누가 하라, 말라 할 게 없이 내 자신을 밀고 나간다면 그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마음을 좁게 쓰지 말고 좀 더 넓게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모두 전체에게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돌팍 밑에 소나무가, 배배 틀려 가지고 올라간 소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말입니다, '야, 너도 배배 틀려서 나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무뜩 들면서 그 나무 한 그루가 내 몸과 같이 참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련해서 가련한 게 아니라 그것이 둘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너도 나와 똑같구나." 하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무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비비 틀려서 이렇게 돌팍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 비비 틀려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면서도 가질 못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에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또 지나가다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토끼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홱 돌아서면서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보면서 빨리 가지를 않고 무츰무츰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토끼를 쫓아가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보니까 그 아래는 천야만야한, 즉 말하자면 덫을 놓은 자리입니다. 덫을 크게 놓고 거기에 짐승들이 빠지면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 놓은 자리예요. 그 토끼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내가 거기에 빠졌을는지도 모르죠. 토끼가 어쩌면 그렇게 영리하게, 무츰무츰 가면서 나를 돌아다봐 가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에 아차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야, 토끼야! 너도 나하고 둘이 아니구나. 어쩌면 둘이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편안하고 전부, 풀포기 하나도 내 친구 아님이 없으니 나는 참 기쁘다. 외로움도 없고 고독함도 없고 모두가 친구로구나!' 하면서 참, 너무 기뻐서 토끼를 안아 주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토끼는 토끼대로 놓치고 나는 나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갔지만 나하고 토끼하고는 항상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풀잎과 이 산천초목이 다 나와 친구고 벗이 돼서, 내 가슴에 언제나 항시 같이 있기에 나하고 항상 벗이 돼 줘서 내가 길을 잃으면 항시 일러 주었습니다. 나무도 길을 안 일러 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나 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지금은 어느 때쯤 됐지.' 하는 그런 말을 전해 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내가 나를 통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생명들하고 다 같이 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앉은 좌가, 좌선이라는 것이 선방에만 앉아서 좌선이 아니라 앉았다 서고, 눕고 자고 깨고, 화장실에 가고 먹고 이런 것이 전부 참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선 아닌 게 없고 의정 아닌 게 없으니,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이 감응이 되고 알아질 때, 비로소 모든 그 위력이, 천 가지 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위력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사 상에 올리는 우주떡의 의미

질문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 있는 사람도 생활하기가 힘든데 돌아가신 조상님들까지 정성스럽게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스님께서 조상님을 위한 재사를 간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편을 내려 주셔서 저희들은 자손들 힘들게 하지 않고 간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손들은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아 선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재사를 지낼 때 올리는 우주떡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재사를 지내고 천도재를 지내야 조상님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지 저희 자손들을 위해 가르침 청합니다.

답변 우리 식구가, 한 식구가 이 세상 식구라고 본다면 우리가 수박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수박을 짜개서 식구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되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심어서 또 중생들이 다 먹고 그 씨는 또 되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 한 그릇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 떡이죠.

재사 지낼 때 얘기 좀 해야겠네요. 스님네들이 상을 차려 놓고 염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을 차려 놓으면 스님네들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스님네들이 아는 것만치, 스님네들이 '아, 돈 얼마를 내놔서 내가 이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요렇게 해 놨다.' 이걸 알고 있겠죠, 스님네들이. 그러면 영가가 들어와서 그것만 압니다. 공부를 못한 스님네들한테 밥 한 그릇을 올리고 재사를 지낼 때는 그 상에 차려 놓은 것밖에는 모르니까 영가도 들어와서 그것밖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공부한 스님네들이나, 예전에도 선사들한테, 그 산 부처님한테 밥 한 그릇을 올리면 그 공덕이 수미산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덕이 크고, 그래서 그 선사들이 문을 탁 열어 놓고선 이 세상 삼라대천세계를 전부 요리를 해서 그 밥 한 그릇에다 포함해서 탁 놓으니까 그 밥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더란 얘기죠. 그러니 '이 세상만사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 아님이 없는데 내가 뭐 부족할 일이 있겠는가.' 하고 영가가 스스로 그냥 한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요.

그렇게 자유스러운 거를, 만약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걸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얘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것을 못할 때는 "스님, 스님과 한마음이 돼서 천혼문만 써서 밥 한 그릇 놓고 저 좀 해 주세요." 해도 그것은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가난치 않든지 이 불교를 배우는 데는 무슨 지식이나 학식이나 또는 이론이나 또는 가난한 거나 부자나 이런 거를 떠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스님이 객승으로 어느 절에 갔답니다. 아, 가니깐 말이에요, 아주 춥고 그래요. 추워서 뭐,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 절에 보니까 커다란 목불이 턱 있거든요, 뒤에는 탱화가 있고. 그러니까 탱화 하나면 족하겠다 하고 그냥 목불을 들어다가 도끼로 풍풍 패서 자기 자는 방에 뜨끈뜨끈하게 때고선 터억 잤죠. 스님네들은 천도식을 하고서 새벽녘에 온 거죠. 와 보니까는 아, 불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객중이 그냥 네 활개를 쩍 벌리고 그냥 뜨끈뜨끈한 방에서 자고 있거든요, 자기네는 추워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멱살을 들어서 "이놈의 객, 이놈의 중놈! 아니, 불상을 갖다가 방에다 때고선 자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 부처님을 이렇게 없애 놨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방방 뛰거든요. "그게 부처님이걸랑 저 아궁이에 가서 뭐 사리가 있나 좀 찾아 봐라!" 그랬답니다.

그래 불을 아무리 뒤져 보니 사리가 나옵니까, 목불인데? "그거 봐라. 그거는 나무지 부처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 부처가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방방 뛰는데 아, 난데없이 어느 여인이 어린애를 못 낳는다고 삼신 불공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안 계시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방방 뛰다가 할 수 없으니까 탱화 앞에다가 밥을 지어다 놨죠, 인제. 공양을 지어다 놓고 하니까 "야, 오늘 내가 뜨뜻하게 잔 대신 내가 불공을 드려 주지." 이러고는 나가더니 이 장삼 자락을 척 쳐들더니 말입니다, 왜 다기 물 모셔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턱 담그더니만, 허허, 그 공양 해다 놓은 거를, 공양을 척척척척 둥글려서 쥐어 가지고는 그 탱화 부처님 입에다가 말입니다, 타악 붙이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생남불공을 하러 왔으니 사내애 하나 줘!" 그러고선 턱 붙여 놓고 "야, 인연 있으면 내년에 또 보세." 그러곤 가거든요.

아, 그럭하고 그냥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 절의 스님네들은 졌죠. 사리 있나 보라고 그랬고, 하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턱 붙여 놓고 갔는데 그 달부터 애기가 있어서 생남을 했거든요. 그래 그 이듬해에 생일이 되니까 또 그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는데 그 스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객승이. 나타나 가지고 "허허! 입에다 밥을 한 뭉칠 넣어 줬더니 밥값을 했구먼." 아, 이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참 무진 법문과 광대무변한 그런 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모든 게 둘이 아닌 도리와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그 스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아서 일체 부처님이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시는 도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울 때 나 떠나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 그 형상은 모두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은 내 마음이요, 부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마시고 진실하게 일배를 올리더라도, 백팔배를 올리기 이전에 일배도 일배요 백팔배도 일배입니다. 아침에 마음먹었던 것과 저녁에 마음먹은 것이 어찌 시간과 공간이 비어 있겠습니까? 둘이 아닙니다. 그 도리는 무심축지법을 안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도리를 알게 되고 나툼을 알게 되는 그 법입니다, 바로.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빛이라도 내다가 상을 잘 차려 놓아야만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난하면 그냥 자기 먹는, 즉 말하자면 아주 급박하걸랑은 냉이죽을 끓여 놨더라도 그걸로라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 당신을 이끌어 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어야죠.

삿된 마음이 죽 끓듯 하는데…

질문 스님, 저의 마음을 지켜보면 스님께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런저런 삿된 마음이 한시도 쉬지 않고 죽 끓듯 올라옵니다. 그렇듯 마음이 죽 끓듯 올라오는데 어찌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그래서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 주걱이 아니라 주자거든요. 그건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걱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도 그놈이고 요놈도 그놈이고 요놈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그놈이구나. 아니, 팥죽 속에서 다 나온 거지, 팥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팥죽 끓듯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생명들이요,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다니거든요.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가거든. 하하하…. 그런데 몸뚱인 놓고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곤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젠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 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 솥에 죽 끓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덩어리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는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그리고 미우면 "어유, 그거 차에도 치여 죽지 않아?"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아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외려 죄업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둥우리는 냉랭한 둥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는 거리로 나돌다가 점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얘, 너 어디 가서 뭐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니? 뭐나 좀 먹었니? 얘, 너에게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부드럽게 해 주고, 여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종이에다가 뽀뽀 한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요렇게 해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는 너무나 따뜻하기에 화목해지고 딴 데로 이탈이 되질 않아요.

맷돌에 심봉을 딱 끼고선 맷돌을 돌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을 때, 물건을 넣을 때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맷돌이 이탈이 되죠. 그리고 그 물건도 갈리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인간이라면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지, 만날….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에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을, 사찰에 물들다.
가을 여행주간
행복만원(幸福滿願)템플스테이
10.20(토) ~ 11.4(일)
접수기간 10월 8일(월) 10:00 ~ 11월 2일(금) 17:00
체험기간 10월 20일(토) ~ 11월 4일(일)
대 상 내외국인 8,000명 (선착순)
운영사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100여 곳
참가방법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정보 확인 후 예약
참가혜택 1박2일 체험 10,000원 (외국인 당일체험 5,000원)
문 의 02-2031-2000 / www.templestay.com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TEMPLESTAY

신임 총무원장에게 바란다

사부대중 인정할 종무행정 펼치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선출
향후 종단 운영에 해결과제 '산적'
전임 원장 퇴진 원인 · 과정 분석해
대중 · 국민들이 인정하는 행정해야
재정투명성 확보 · 감사 활성화 필요
율장 정신으로 승가 위의 회복 절실
저출가 · 신도 감소 민첩하게 대응해야
종단 안팎 비판 목소리도 섭수하길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소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원행 스님이 선출되면서 원만하게 회향되었다. 이번에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행정학 박사로서 다양한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금산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나눔의 집 원장 등을 역임해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겸비한 종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축하와 더불어 몇 가지 당부와 소망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모두 4명의 스님이 출마했으나 3명이 중도에 사퇴함으로서 선거인단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기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임 투표적 성격을 띠었다. 사퇴한 후보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번 기회에 보완될 필요가 분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에 의해 여법하게 진행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쉽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신임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의 향후 종무행정 추진과정에는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중도에 사퇴한 후보 스님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이 스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섭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제시된 공약 중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해 종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신임 총무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전임 원장의 퇴진의 전말에 대해 발생원인과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불자들을 비롯해 종도 · 사부대중의 눈높이와 평가 기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종무행정을 답습할 경우 매우 큰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종책을 집행하고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투명성 확보, 관리감독과 감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사부대중이 인정하는 종무행정이 돼야 한다.

신임 총무원장 스님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종책 과제는 율장 정신을 바탕으로 승가 위의와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종단 청사 밖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정기적인 집회와 조직화된 상황에서 종단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라는 표현은 다소 과한 감이 있으나 종단 내외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섭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종단은 저출가와 신도 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예상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가 문제는 소수 엘리트 출가주의 종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스님들이 종단에 유입하는 대중출가제도를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수라도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승가교육과 수행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도 감소는 조직화된 핵심 신도, 원력을 갖춘 재가보살들을 통해서 포교방법을 모색한다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소수의 스님들이 조직화된 다수의 재가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사찰을 운영하고 포교활동을 전개해야만 종단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

신임 총무원장 스님은 무엇보다 실천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종단과 사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社說

제36대 집행부, 조계종 화합 이루길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前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당선됐다. 원행 스님은 당선소감에서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수장의 다짐은 현재 조계종이 불협화음 상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선거를 치른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열린 총무원장선거다. 짧은 기간 동안 조계종은 전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비롯해 핵심 지도자급 스님들의 스캔들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설조 스님의 40여일 단식, 총무원장 직선제 운동, 전국선원수좌회 등을 비롯한 승려 결의대회까지 재야인사들은 집행부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측은 재야단체의 목소리를 반박하고,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하면서 양측은 세 대결로 풀이되는 모습을 연출해 세간에 부끄러움을 남기기도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이 이처럼 수개월간 쉼 없이 갈등을 지속해오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소통과 화합' '대중공의'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한 종단 운영기조로 세웠다. 그리고 총무원장 당선과 동시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제36대 집행부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선을 확신한 채 준비해온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후보자가 당선 이후 계획까지 세워 출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부디 종무 공백 없이 종단 화합을 위해 새 집행부가 분골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주홍글씨, 불심으로 지우자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온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사회에서 받아 주질 않는다'는 말이다. 이른바 주홍글씨다. 작은 범죄라도 출소한 이들은 전과자란 이유로 배척받는다.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토예총 조사결과 출소자의 3년내 재범률이 22%를 넘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2010년 출소자 2만 5066명 중 3년 내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이들은 5540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주거지원이나 생활지원 등을 통하면 1%대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서울 봉은사가 출소자를 위한 전통혼례식을 10월 5일 여는 것이다. 이날 혼례식에서는 8쌍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 전통혼례 방식을 택한 이유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해 축복해주기 위해서라니 둘만의 결혼이 아닌 대중이 함께 축하해주는 새출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교계는 노인복지, 어린이교육 등 굵직한 사회공헌에 나서왔다. 교정교화 분야에도 뛰어들어 교정교화시설에서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불교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부적응자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으로 공헌한다면 불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불교가 나서서 깰 때다.



기자칼럼
김지원 취재부 기자

언젠가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10월, 노인의 달에 불교계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이들과 단체의 공을 치하해왔다.

조계종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날과 개관 15주년을 기념하는 '2018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 대축제-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해 복지관 어르신들과 지역주민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12일 오후 1시 광진광장서 열리는 이날 축제에서는 모범어르신 및 직원을 표창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축하공연과 주민가요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

천태종 강북노인종합복지관도 지역 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니어 樂(락) 축제'를 연다. 10월 8일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라인댄스, 한국무용, 트로트와 같은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불교계는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1차적인 기부 방식을 시작으로, 불교계는 그간 했던 방식들을 참고삼아 고령자 취업컨설팅부터 노인 영화감독 및 해설전문 교육까지 노인복지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이를 위해선 "노인뿐 아니라 청년들,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의 말에는 현재 불교계의 노인복지가 노인들만 참여하고 즐기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불교계와는 다른 분위기다. 경로가 아닌 혐로(嫌老, 노인혐오) 일색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최초로 전국 노인(65세 이상) 1000명과 청 · 장년(19~64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극심한 세대 갈등을 진단했다.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 중 80.9%는 '우리 사회가 노인에 부정적 편견이 있고,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겨나는 신조어와 피해사례들을 통해 청년들의 혐로 현상이 성행함을 짐작할 수 있다. '틀딱충(틀니딱딱+벌레)' · '할매미(할머니+매미)' · '연금충(국민연금으로 연명하는 벌레)' 등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초등학생들까지 번지고, 청년 세대들은 너무나 쉽게 노인을 조롱한다.

전문가들은 혐로 현상을 정착시키지 않기 위해 전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소외돼가고 있는 노인들의 불안과 불만도 존재한다. 청년층은 고립된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먼저 바라보면 어떨까. 노인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 먼저 협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물론 노인층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조언'이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달라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노년이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들어야 할까. 젊은 날은 노인이 걸어온 길이고, 노인은 젊은 나의 미래 모습이다. 사람은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이는 공평하게 먹는다.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과 차별어린 편견을 가질수록 그 화살은 미래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자. 올해 노인의 날엔 노인들은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청년들은 진심으로 노인들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지를 반추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충청지사 : (042)631-7747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즉문즉설④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 서울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규모가 있는 큰 절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온다.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자 한다. 몇 번 연락이 와서 여기 학장스님과 같이 그 사찰을 찾아갔는데 주지스님이 여기 보이는 이 산중 전체가 절 소유란다.

차를 한잔 하면서 소납이 바로 얘기를 꺼냈다. "혹시 현대불교신문(2016.2.24.일자 한국불교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합시다)를 보셨습니까?" 하고 묻고는 "이 신문을 두고 갈테니 면전에서 펼치지 마시고 내가 산문을 벗어난 뒤 보십시오." 하며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했다. "어떤 경로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문일 뿐입니다.믿지 마십시오. 미리 여기 안 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소납의 요구조건을 받아주면 오겠습니다.

소납은 신문에 쓴 데로 일체 **비불교적인 것 (사주, 부적, 삼재기도, 입시기도, 승진기도, 인등, 평생위패, 만년위패,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108 산사순례 포함 등등...)** 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전과 조사어록에 지도원리가 다 있으니**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기존 신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납이 와서 한 달이 지나면 아마 10%도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단 1명이 남는다 치면 스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불자가 부처님 진리의 바른 말씀 (금강경에서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를 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1명을 제외하고 머리 숫자에 불과한 그들은 정법을 무시하고 샤머니즘에 길들여졌기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1달 생각할 여유를 주고 산문을 나섰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농번기에 추수를 해서 알맹이와 쭉정이를 골라내고 저 할 때 바람을 이용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다.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알맹이이다. 그 알맹이가 또 싹을 틔운다. 부처님의 바른 성품이 씨앗을 틔우듯이...

그래서 알만한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들이 오게 해서 점차적으로 부처님 교설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영험, 신비 등을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 작금에 와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만들고 말았다.

여기는 전국에서 환우들이 주로 온다. 올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꼭 떼어오라고 한다. 현대 의학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시한부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상담 시 꼭 묻는 것이 있다. 어느 종교든 상관없이 얼마나 바르게 신행활동을 했는지 물을 때 부적, 삼재기도, 삼재풀이 인등... 등을 꼭 물으면 "스님! 그런 것 안하는 절이 있습니까?" 하며 오히려 나에게 반문을 한다. "여기 이 스님이 있는 연등사는 절대 그런 것 하지 않는다." 고 하면 의아해 하며 놀란다. 그러면서 "그럼, 절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며 도리어 걱정을 한다. "그럼 삼재풀이, 삼재기도는 당연히 했겠고 그에 따른 부적을 집에 붙여 놓고 본인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 손주, 손녀까지도 소지하고 있겠네요."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값을 얼마나 지불했어요?" 하니 "그것까지도 얘기해야 됩니까?" 한다. 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금액은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있기에 상상에 맡긴다. 또 기도시 ○○절, ○○ 스님, ○○ 법사가 조상을 들먹이고 환우를 핑계로 천도재와 구병시식을 몇 번 했으며, 그에 따른 재비를 얼마나 지불했고, 어떤 기도를 하라해서 했고, 현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자세히 묻는다. "그렇게 해서 나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도 여기까지 올 정도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위대한 부처님을 모시고 기만행위를 했는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은 오늘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물었다. "그 절 스님이 무엇이 삼재라고 합니까?" 하니 "들삼재가 ○○○ 띠고, 눌삼재가 ○ ○○ 띠고, 날삼재가 ○○○띠래요." 하고 글자 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듣고 있는 내가 놀랄 지경이다. 아니 이럴 수가? 대부분 경전에 대해서 물으면 벙어리인양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삼재를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 불자가 불교대학 ○○기 라나?...) 불교사전을 펴서 삼재(三災)를 찾아 제목과 내용을 읽게 했다. 내용은 **겁 말에 일어나는 세 가지 재해로 소삼재 (도병재, 질병재, 기근재) 와 대삼재 (수재, 화재, 풍재)가 있다...** 생략

"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것과 책(사전)을 보고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용히 답을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입춘 때 주 메뉴는 물어보나마나 삼재풀이, 삼재기도 라고 하는데, 백중날은 백중법문을 하는데 **입춘 때는 왜 삼재법문을 하지 않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삼재법문을 하는 데가 없고 일반법문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연등사는 해마다 입춘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 재앙인 삼재(대삼재, 소삼재) 법문을 하고 있다.** 금년 엄청난 폭염을 겪었지만 해가 갈수록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심화될 것이다.

어느 과학자가 십년 후에는 50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빚어진 지구 재앙인 것이고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미리 삼재라고 알려 주셨던 것이다.

경전과 조사어록 어디에서 밖으로 부처를 찾으라 했는가? 지금 각 사찰이 부처 찾는다고 연례행사로 108 산사순례,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하고 있다. 또 물고기 방생도 역시 연례행사처럼 꼭 하고 있으니...

"부처 찾는 일은 밖으로 제발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으로 찾아라."고 어록마다 구구절절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바깥으로 다니고 싶으면 내 고향 부모, 형제들 찾아뵙고 인사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 방생을 위해 병원을 찾든지 내 이웃을 찾아 여행 경비 등으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자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그들의 말벗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인해 괴롭고, 슬프고 한 것이지 물고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라!**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물고기를 살려야 하는지...** 정말 웃을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문하는 크고 작은 스님이나 법사를 보기 힘들다. 초청받은 법사가 이런 법문할 수 없는 것은 **임제록에서 〈만약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날까봐 ~〉** 운운하는 글이 있다.

[사례 4 조현병 -- ○○스님]

미리 전화가 왔고, 정해진 날에 스님 2분과 나이가 드신 노보살님이 같이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님 2분 중 한 분은 그 스님의 상좌라 한다. 선뜻 명함을 내밀길래 받아서 찬찬히 보니 큰 절 ○○스님이라 굵직한 직함들이 많이도 있었다. "스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니 본인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이 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고 물으니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스님!이 스님의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하고 말을 시작했다. "왜 병명도 없이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껏 출가해서 어떤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늙으막에 병명도 없는 마구니가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을 합니까?" 하니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소납이 어떻게 해 주길 바랍니까?"하니 "안 아프게만 해 주면 된다." 고... "안 아프게 해주면 남은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소납보다는 연륜이 좀 많으신데 여기에 오기 까지는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소납이 해결사는 아니지만 스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스님 정도면 소납의 제안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 되었을 시 기도를 통해 안 아프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큰 절에서 부처님 바른 교지대로 모든 것을 지도 원리로 삼아 이행하고 실천합니까? 그렇다고 하길래 "그럼 내 물증을 제시 할테니 보십시오. 본 납자는 여기 오시는 분들 기도 시 집기도 까지 가서 종전까지 다녔던 사찰의 모든 기도 안내문, 권선문, 부적 등등...을 다 걷어 와서 부적은 불태우고 권선문이나 기도 안내문 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신도들에게 보냈던 안내문과 여러 종류의 등 (재수대통등, 소원성취등, 사업성취등, 삼재팔난등, 수능합격기도등) 권선문과, 또 물고기 방생 안내문을 보여주었다. "분명 스님이 계신 절이 맞죠? 그리고 신비한 ○○ 가 있다고 선전하며 그곳에 관광차로 노보살님들을 시도 때도 없이 오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능엄경과 달마어록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교는 절대 요행이 아닙니다. 지금 가셔서 대중의 공의를 모으셔서 오늘 나열한 이런 것들을 멈추시고, 소납에게 통보하십시오.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 후 날자를 잡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 소납은 초파일을 비롯해 큰 행사 시 신도님들에게 꼭 묻는 것이 하나 있다. 통칭 염라대왕이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 (신랑, 부인, 아들, 딸)중 때가 되어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한번만 살려달라고 염라대왕께 매달리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살려주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온다면 내 살려주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생명인지, 재산인지...**

대부분 여기 거제도에 있는 연등사라는 조그만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매스컴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종교집단에 재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탈진상태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오는 이는 드물다. 대신 스님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장을 열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자주 알리고 쉽지만 본 사찰은 사주, 부적, 삼재,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정법 불교를 알리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납은 각종 환우기도 시 신도님들과 더불어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한다. 특별한 환우(조현병 환자)는 상태에 따라 관전만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같이 한다.신도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아야 **삿된 곳에 쫓아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다.** 분명 불자들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도 보여라 했다.정법을 지켜내기 위해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 신도님들은 가지 가지 많이도 봤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최초 즉문즉설안내

내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	2018. 10. 7 (일) 오전 10시
장소	연등사 대웅전
전화	055-633-6555
참가자격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 앞으로는 재정이 허락 된다면 스님들 조현병 사례를 쓰고자 한다.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김○○	010-2526-4365
박○○	010-4807-6932
박○○	010-9707-4808
윤○○	010-6786-7495
선현	010-3143-5302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